

기독론 강의 1 - 기독론, 기독론의 역사

1. 신학의 정의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학이란 '체계적 연구에 의해 얻어진 사실들이나 원리들에 대한 지식' 즉 체계적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진리들에 관한 체계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흔히 '조직 신학'이라고 부른다. 엄격한 의미에서 신학은 조직 신학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진리들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들의 기록인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을 단순히 신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신앙이나 종교경험의 학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개념을 배격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 성경 말씀에서만 찾는 것이 바른 태도이며 역사적 개신교회의 입장이다. 신학은 교의학(dogmatics)이라고도 불린다. 교의는 니케아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같이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교회의 공식적 진술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교의란 교리(doctrine)와 구별된다. 교리는 말로 표현된 진리를 가리키며 진리와 거의 동일시되지만, 교의는 보다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진술이다. 그러므로 교의학은 하나님의 진리들에 관한 교회의 공식 진술들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기독론의 정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시다'는 신앙적 고백을 신학적으로 규명해 보는 분야

범위는 역사적 예수 탐구 + 신앙고백적 진술 포함

기독론의 신학적 위치

- 기독론은 기독교 신학의 중심으로 기독론에 따라 신앙의 입장과 신학적 방향이 결정된다. 신론, 성령론, 창조론, 인간론, 교회론, 성서론, 종말론도 기독론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3. 신약의 기독론

1) 바울의 기독론

(1) 특징 - 유대교 전통 안에 있으면서 헬라적 사상의 개념을 통합시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적 해석을 체계화시킴

(2) 명칭

그리스도 : 가장 정확히 발견

주 :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

대속자 : 대속 죽음 강조, 화목제물의 개념

(3) 요점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고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2) 유대적 기독교론

(1) 특징 - 구약의 예언과 성취의 도식으로 예수를 설명, 예수가 메시아다.

(2) 대표적 : 공관 복음(특히 마태),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 계시록

마태복음 기독교론 : 예수는 천국주인, 예수는 메시아 강조

마가복음 기독교론 : 하나님의 아들과 종, 겐비의 기독교론

야고보서 기독교론 : 믿음 전제한 후 행위의 중요성 강조

히브리서 기독교론 :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유대교의 제사제도 통해 설명

계시록 기독교론 :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새벽별, 어린양

3) 헬라적 기독교론(요한의 기독교론)

(1) 말씀(로고스) : 헬라 사상의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 설명

(2) 영적 메시아 : 종말론적 구원자의 모습

(3) 들리운 인자 : 구속의 주로서의 인자

(4) 하나님의 아들 :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표현

4. 기독교론의 역사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으로, 사람의 아들(A子)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의 무죄하신 성품이 단언되었으며, 그는 예배의 합당한 대상으로 존중을 받았다. 당연히, 동시에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그리스도상(像)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그 속에 내포된 난점들이 초대 교회의 신자들에게는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고, 단지 논쟁 과정 중에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유일신론을 특히 강조하는 유대교가 초대 교회의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현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예비온파(혹은 그 일부)는 유일신론을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단순한 인간으로 보았는데, 그가 세례 받으실 때 그 위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초대 교회에는 이와 유사한 노선 위에 기독교론을 구축한 다른 종파들이 있었다. 그 로고스 교리가 신약의 다른 내용들과 상반된다는 이유에서 요한의 글을 거부했던 알로기파(Allogi)도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았고(비록 기적적인 동정녀 탄생은 인정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세례시에 그의 위에 강림하여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했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또한 역동적 단일신론들(Dynamic Monarchians)의 입장과 대체로 일치했다. 그 주된 대표자인 사모

사타의 바울(Paul of Samosata)은 예수님과 로고스를 구별하였다. 그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한,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는 인간으로 보았고, 로고스를 비인격적인 신적 이성으로 보았는데, 이 로고스는 그리스도의 세례 당시부터 그의 속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고 가르쳤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호하는 것은 초기 변증가들의 과업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고수하기 위해 신성을 희생시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영지주의자(Gnostics)는, 물질을 영혼과 정면 대립되는 것으로 보았던 헬라인들의 이원론적 관념과 지상의 사물들을 거대한 우주적 구속 과정의 풍유적 표현 (allegorical representation)으로 보는 신비주의 전통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시적 현현인 성육신 사건을 거부했는데, 왜냐하면 이는 영과 물질의 직접적인 접촉을 내포하기 때문이었다. 하르닥에 의하면, 그들 대다수는 그리스도를 천부와 동질적인 영으로 간주했다. 혹자는 그리스도가 수세시에 인간 예수 위에 강림했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시 떠나갔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단지 환영적인 몸을 취하였다고 생각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자들 (Modalistic Monarchians)도 역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는데, 일부는 그 신성을 위해서였고, 일부는 신 존재 (Divine Being)의 단일성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그를 단지 한 하나님의 양태 내지는 현현으로 보았으며, 하나님의 위격의 구별을 인정치 않았다. 반(反)영지주의자들과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호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변호 과정에서 그를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로 묘사하는 오류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터툴리안도 일종의 종속론을 설파했는데, 본체의 (as to essence) 종속을 주저 없이 주장했던 오리겐이 특히 그러했다. 이는 그리스도를 신적 이성인 로고스와 구별하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인간보다 뛰어난 시간 이전적 (pre-temporal)이고 초인적인 피조물 곧 피조물의 첫 열매로 보았던 아리우스주의로 나타나는 디딤돌이 되었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주장에 반대하여, 성자는 성부와 동질이고 동일 본체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변호했는데, 이 입장이 321년 니케아 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반(半)아리우스주의는 성자가 성부와 유사한 본체를 가졌다고 선언함으로써 중도적 노선을 제안하였다.

* 니케아 신조(The Nicene Creed) - 콘스탄틴 황제는 제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사도행전 제15장의 예루살렘 회의 이후 최초의 에큐메니칼 회의(The First Ecumenical Council)를 콘스탄티노플 근처에 위치한 니케아에서 A.D.325년에 소집하였다. 당시 5교구 곧 로마에 있는 교구(-서방 교회의 전신)과 나머지 알렉산드리아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및 콘스탄티노플 교구에서 318명의 감독이 참석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지었는데, 후에 381년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보완된 후 동방 교회 내지는 희랍 정통교회의 고전적 신조가 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천지와 유형적·무형적 만물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한 분 아버지를 믿사오며 또한 모든 세계들 이전에 그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창조되지 아니하고 성부와 하나의 실체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하나님, 빛의 빛,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에 의하여 만물은 지은 바 되었으며 그는

우리 사람들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사,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에 의하여 성육신되시사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하에서 역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그는 고난을 받으셨고 장사지낸바 되셨다가 삼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그는 산 자와 죽은 자를 함께 심판하시기 위하여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나는 생명의 주시며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사오니, 그는 성부와 성자(이 성자 [filioque]라는 구절은 A.D.589년 톨레도에서 모였던 서방 교회의 회의에 의해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첨가되었다)에게서 발현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에 의해 말씀하셨다. 하나의 공회를 믿사오며 사죄를 위한 하나의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장차 올 세계의 생활을 기다리나이다.

* 아다나시우스 신조(The Athanasian Creed)

1.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것은 전교회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2. 각자가 그것을 완전하고 신성하게 보존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녕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3. 그러나 전교회적 신앙은 이것이니, 곧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한 연합된 삼위일체를 예비한다는 것이다.
4. 인격들을 혼동하거나 실체를 구별할 수 없다.
5. 왜냐하면 성부의 인격은 하나요, 성자의 인격은 또 다른 것이요, 성령의 인격은 또 다른 것이다.
6.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인격이며 동등한 영광과 공동적으로 영원한 위엄이 있다.
7. 성부가 존재하시며 마찬가지로 성자와 성령도 존재하신다.
8. 성부는 창조되지 않고 성자도 창조되지 않고 성령도 창조되지 않는다.
9. 성부는 무한하시고, 성자도 무한하시고, 성령도 무한하시다.
10. 성부는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시다.
11. 그렇지만 세 가지 영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원이 존재한다.
12. 그러므로 창조되지 않은 세 가지(실유)가 존재하거나 세 가지 무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조되지 않은 (실유)와 하나의 무한이 존재한다.

13. 마찬가지로 성부는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전능하시다.
14. 그러나 세 가지 전능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전능이 존재한다.
15. 이와 같이 성부는 하나님이시며 성자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하나님이다.
16. 그렇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한다.
17. 이와 같이 성부는 주님이시며 성자는 주님이시며 성령도 주님이시다.
18. 그렇지만 세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주님이 존재하신다.
19.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진리에 의해 각 인격을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강요를 받는 것처럼, 전교회적 종교(공교회적 종교)에 의해 세 하나님이나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금지를 받기 때문이다.
20. 성부는 그 어떤 것에서 지은 바 되거나 창조되거나 태어나시지 않으셨다.
21. 성자는 다만 성부에게서 오며 지은 바 되시거나 창조되시지 않고 태어나신바 되셨다.
22. 성령은 성부와 성령에서 오며 지은 바 되거나 창조되거나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발현하셨다.
23. 그러므로 세 성부가 아니라 한 성부, 세 성자가 아니라 한 성자, 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존재하신다.
24. 그리고 이 삼위에서 누가 처음이고 나중이며, 누가 더 높거나 낮지 않으시다.
25. 그렇지만 공동적으로 영원하신 인격들은 모두 그들 자체들 가운데서 공동적으로 동등하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모든 것을 통하여 삼위에서의 통일성과 통일성에서의 삼위성이 예배될 것이다.
26.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생각해야만 한다.
27. 그러나 그가 역시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에 필수적이다.
28.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29. 그는 하나님으로서, 성부의 실체에서부터 영원히 산출되셨다. 또한 사람으로서 그의 어

머니의 실체에서 때를 맞추어 탄생하셨다.

30. 이성적인 영혼과 인간적 육신으로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사람이시다.

31. 그의 신격과 연관하여 성부와 동등하며, 그의 인간성과 연관하여 성부보다 못하다.

32.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지만, 둘이 아닌 한 그리스도이시다.

33. 그러나 그의 신격이 육신으로 전환된 것에서가 아니라 인간성이 하나님으로 인수됨에서 하나이다.

34. 실체의 혼동에서부터가 아니라 인격의 통일성에서 하나이다.

35. 왜냐하면 이성적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것처럼 신인(神人)은 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36.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37. 그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과 더불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 자신의 행위가 고려될 것이다.

38. 그리고 선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악을 행한 자는 영벌(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39. 이것이 전교회적 신앙이니, 사람이 신실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성자의 신성 교리가 공식적으로 확립되자, 자연히 그리스도 안에 병존하는 양성(兩性)간 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아폴리나리스(Apollinaris)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그는 인간을 육, 혼, 영으로 나누는 헬라의 삼분법적 인간관을 받아들이면서, 로고스가 인간 내부의 영(프뉴마)의 자리(그는 이를 죄의 처소로 간주했다)를 차지하셨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그 인격의 단일성을 보전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는 구세주의 완전한 인성을 포기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했고, 그 결과 그의 견해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명백히 정죄되었다. 아폴리나리스가 주장했던 쟁점들 중의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이었다.

몹수에스티아의 데오도레 (Theodore of Mopsuestia)와 네스토리우스 (Nestorius)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했고, 그 안의 로고스의 내재를 신자들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누리는 단순한 도덕적 내주로만 이해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곧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지만 단일한 인격적 생명의 하나 됨에서는 그와 하나가 아닌 사람을 보았던 것이다. 즉, 두 인격으로 구성된 한 중보자를 보았다. 이에

반대하여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Cyril of Alexandria)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을 강조했고, 그의 반대자들은 그가 양성을 부인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반대자들이 오해한 듯싶지만, 유티케스(Eutyches)와 그 일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의해 흡수되었거나 양성이 융합하여 단일한 본성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양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 근거로서 시릴을 인용하였다. 451년의 칼케돈 회의는 이들 양극단의 견해를 전부 정죄하고, 위(인격)의 단일성 (unity)과 양성을 함께 주장하였다.

* 칼케돈 신조(The Symbol of Chalcedon)

A.D.451년에 말시아누스 황제는 제 4 차 에큐메니칼 회의를 콘스탄티노플 맞은편 보스포루스에 있는 비두니아의 칼케돈에서 소집하였는데, 이는 유티키안과 네스토리우스 이단을 정죄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이단들은 헬라 계통의 '알렉산드리아 교구'와 유대 전통에 영향받은 '안디옥 교구'에서 인성이나 신성을 극단적으로 배척하였기에 일어났다. 전자는 플라톤, 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연관을 맺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요 로고스라는 점에 무게를 둔 나머지 그의 인성은 가현(假顯)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후자는 공관복음서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구체적 인성 내지는 역사성을 중시하여 그의 신성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 두 흐름은 이전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강조점을 달리하였다.

이 회의에 의해 동의된 "신앙의 정의"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만장일치로 사람들에게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나니, 그는 신격에 있어서 동일하게 완전하시며 인격에 있어서도 역시 완전하신 분이며, 이성적인 영혼과 육신을 가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신격으로는 성부와 동질이시며 인격으로는 우리와 동질이시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신격으로는 성부의 전 시대에 태어나셨고 인격으로는 이 후대에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동정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는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이시며 두 성품을 가지고 계시나, 혼합이나 변화, 구분, 구별이 없으시다. 두 성품의 차이가 그들의 연합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각 성품의 독특한 고유성이 보존되고 한 인격과 한 실체으로 모여,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으신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자요 독생자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그에 관하여 선언하였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가르치셨으며 거룩한 교부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하셨다.

이렇게 채택된 정통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의 이성(二性)이 있어서 각 성은 완전하고 유지적이며, 또 나눌 수 없이 연합되어 있으나 오히려 제 3성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는 이성(二性) 일인격(一人格)이라고 하였다. 이 회의는 이 교리에 포함된 난제들을 해결하기보다도 그릇된 견해들을 막기에 노력한 것이었다. 그리고 교회는 이성(二性) 일인격(一人格)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계시된 신비이기 때문에 그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칼케돈 회의에서 이성(二性) 일인격(一人格) 교리가 확정되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지가 하나이나 두 개이나, 또 그 의지는 위(位)에 속하느냐 인성이나 신성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의설파와 이의설(二意說)파가 나뉘어졌는데, 일의설파는 인격의 통일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는 한 의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반하여 이의설파는 그리스도의 이성(二性)에 기초하여 신적 의지와 인간적 의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의설 주장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생활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의설 주장자들을 비난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680년에 열린 제 6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끝이 나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이의설을 정통교리로 받아들였으며 동시에 인간 의지는 신적 의지에 항상 예속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독론 강의 2 - 그리스도의 명칭과 성질, 일위성

A. 그리스도의 명칭

1. 예수

이는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의 헬라어 이름이다. 이 이름은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마 1:21).

1) 예수는 메시아다.

2)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시다.

3) 예수는 구약에서 그 예표를 갖는다.

(1) 눈의 아들 여호수아 :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 구원을 완성, 안식

(2) 눈의 아들 여호수아 : 토지 배분, 완전한 삶 보장

(3)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 속죄로 구원을 이룩한 예수를 예표

2.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다. "기름붓다"라는 의미의 "크리오" 동사의 수동태 남성명사형이다.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 이는 히브리어 "마사" 동사(기름붓다)의 수동태 명사형이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기름부음을 받았다(출 29:7, 레 4:3, 사 9:8, 삼상 9:16, 10:1, 삼하 19:10). 선지자가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열왕기상 19:16에 한 번 기록되었으나, 시편 105:15, 이사야 61:1에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기록이 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했다. 그로 인해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게 된다.

기름 부음은 (1) 직분에 임명함, (2) 기름 부은바 된 자의 신성한 관계 및 결과적인 신성 불가침성의 확립(삼상 24:6: 26:9: 삼하 1: 14), (3)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전달함(삼상 16:13: 참조. 고후 1:21, 22)의 가시적 상징이었다. 구약은 시 2:2: 45:7에서, 신약은 행 4:27: 10:38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영 원 전에 그의 직분에 임명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의 기름 부음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눅 1:35)와 그가 특히 수세기 성령을 받으셨을 때(마 3:16: 막 1:10: 눅 3:22: 요 1:32: 3:34)였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그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처음에는 관사가 딸린 보통 명사로서 주(the road)께 적용되었지만, 점차 고유명사화 하여 관사 없이 사용되었다.

3. 인자(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호 휘오스 투 안드로푸)"이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쓰셨던 용어이다. 반드시 정관사 "호"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용법으로, 당시에 어떤 사람도 이런 말로 일인칭 대명사를 대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례적인 언어의 용법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신 것에는 아멘의 용법이 있다. 여하튼, 예수께서는 이를 통해 자신이 다니엘 7:13에 나타나는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로서 오셨음을 나타내셨고, 또한 그 인성과 함께 신성을 드러내셨다.

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그것을 일인칭 대명사를 대신하여 사용하셨고, 그것도 반드시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하셨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효과적으로 은폐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효과적으로 계시하기까지 하셨다. 인자라는 호칭은 성육신의 신비를 가장 강조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었다:Q) 이스라엘 민족(출 4:22; 뵤 31:9; 호 11:1), @이스라엘의 직분자들, 특히 다윗 가문의 약 속된 왕(삼하 7:14; 시 89:27), @천사들(욥 1:6; 2:1; 38:7; 시 29:1; 89:6), @일반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창 6:2; 시 73:15; 잠 14:26).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은 신정적(敍 政的) 의미를 획득했다.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 명칭을 전용하셨고 다른 사람들도 이 를 그에게 돌렸음을 보게 된다. 이 명칭이 예수께 적용될 경우 네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성경에서 항상 구별되는 것은 아니며 간혹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1) 직분적 또는 메시아적 의미

그리스도의 성질보다는 직위를 묘사하는 경우, 메시아는 하나님의 후사와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될 수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같이 불렀을 때 이를 메시아적 의미로 이해했음이 분명하다. 마 24:36; 막 13:32도 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예수님의 세례와 변화 시에 들린 음성에도 포함된 명칭도 그같이 해석될 수 있지만(마 3:17; 17:5; 막 1:11; 9:7; 눅 3:22; 9:35), 아마도 좀 더 깊은 의미를 지닌 듯하다. 메시아적 의미가 삼위 일체적 의미와 결합된 구절도 몇 군데 보인다((2) 이하를 보라).

2) 삼위 일체적 의미

이 명칭은 때때로 그리스도의 본질적 신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그 자체로는 선재적 아들 됨(sonship)을 가리키며, 이는 그리스도의 인간적 삶과 메시아로서의 공식적 소명을 완전히 초월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용례는 마 11:27 ; 14:28-33; 16:16과 병행 구절들; 21:33-46과 병행 구절들; 22:41-46; 26:63과 병행 구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구절들 중에서 메시아적 아들 됨의 개념은 다소 정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의 몇 구절에서 존재론적 • 메시아적 아들 개념이 상호 결합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록 이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명백히 암시하

고 있다 (6:69; 8:16, 18, 23; 10:15, 30; 14:20 등). 서신서에서 그리스도는 빈번하게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되고 있다(롬1:3; 8:3; 갈 4:4; 히 1:1; 기타 다수).

3) 출생적 의미

또한 그리스도는 그의 초자연적 출생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 된다. 이 같은 적용례는 그의 인성의 기원을 하나님의 직접적 · 초자연적 부성(父性)에서 찾는 누가복음의 유명한 구절(1:35)에 나타나고 있다.

4) 윤리-종교적 의미. 신약에서는 이 같은 의미에서 믿는 자들에게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마 17:24-27의 '하나님의 아들'은 윤리-종교적 의미로 예수께 적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주(Kurios)

'주'라는 이름은 70인역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적용되는데,(1) 여호와와 동격어로, (2) 아도나이의 번역으로, (3) 인간적 경칭을 하나님께 적용시킨 것으로(주로 아돈, 수 3:11; 시 97:5) 쓰인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명칭이 그리스도께 사용될 경우, 다소 유사하게 삼중적 의미로 쓰인다.(1) 정중하고 존경하는 인사 형식(마 8:2; 20:33), (2)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위 개념을 내포하지 않은 단순한 소유권과 권위의 표현 (마 21:3; 24:42), (3) 권위의 최고 함축어로서, 승화된 인격을 표현하여 사실상 "하나님" 과 동의어 (막 12:36, 37; 눅 2:11; 3:4; 행 2:36; 고전 12:3; 빌 2: 11). 어떤 경우에는 이 명칭의 정확한 의미를 설정하기 어렵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이 명칭이 가장 고양된 의미로 적용되었다. 예수는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임을 지시하기 위하여 야훼의 희랍어인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셨다.

6. 마지막 아담

1)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붙인 이름

2) 새 인류의 조상됨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

3) 신령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예수를 마지막 아담, 곧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심

(1) 하나님은 첫 아담의 실패로 새 인류를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하심

(2) 마지막 아담을 영으로 출생케 하사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심

(3) 그리스도로 새 인류를 조성케 하심

(4) 새 인류는 다 영으로 난 자들

7. 주의 종

1) 주의 종의 칭호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한 칭호

- 2)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칭호
- 3) 피조물을 입었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
- 4) 주님이 종이 되어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이신 종

B. 그리스도의 성질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그리스도의 본성을 인간의 이성으로 규명하기는 힘들다. 그리스도의 본성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하나의 신비로 남아 있다.

1.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롬9:14; 빌2:6; 딤후2:13)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마16:16)이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계19:16)로서 전능하시며(마28:18) 전지하시고(요1:48) 무소부재하신(마18:20) 신적 속성을 지녔으며, 창조(요1:3)와 보조(골1:17), 죄의 용서(눅7:48)와 심판(요5:27)의 신적 사역 및 성령을 보내시고(요15:26)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요5:25) 완전한 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래 사실로 증명된다.

1) 구약의 예언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사9:6), '여호와와 해'(렘23:5,6),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단7:13), '언약의 사자'(말3:1,2) 등으로 표기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보여준다.

2) 예수의 자의식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마11:27; 요17:1), 그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기셨다(요5:18, 21; 12:44, 45).

3)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

신약 가운데는 마태(마1:23;3:17), 누가(눅1:31,32,35), 사도 요한(요1:1), 세례 요한(요1:34), 베드로(마16:16), 도마(요20:28) 그리고 바울(롬1:4;행9:19,20;골1:15;2:9)이 예수의 신성을 증언했다.

4) 예수의 선재(先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요1:1;17:5,24;골1:15,17;미5:2)

2. 그리스도의 인성

성경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무죄한 인간임을 밝히고 있다.

1) 완전한 인성에 대한 증거

(1) 구약의 증언 - 구약은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며(창3:15), 아브라함의 씨로 오며(창22:15-18), 다윗의 혈통을 이어 받으며(삼하7:12,13), 아기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사7:14; 9:6).

(2) 예수는 스스로 인간이라는 의식을 가지셨다(요8:39,40).

(3) 신약의 저자들(마1:1-17; 눅3:23-38)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진숴했다(롬5:15; 고전 15:21; 딤후2:5).

(4) 예수께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육체(요1:14; 딤후3:16; 요일4:2,3)와 영혼을 가지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마27:50; 눅23:46).

(5) 예수는 보통 인간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눅2:40,52; 히5:8).

(6) 예수는 인간이 가지는 배고픔(마4:2)과 피곤함(마8:24)과 희노애락의 감정(막3:5; 요11:35; 눅22:44)을 가지셨다.

(7) 예수는 인간적인 제약을 받으셨다(마24:36; 눅7:9).

2) 무죄한 인성에 대한 증명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으나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성(罪性)은 가지지 않으셨다. 이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1)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하여 출생하였으므로 인간의 유전적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눅1:35).

(2) 죄의식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책잡히지 않았다(46). 다른 사람에게 는 죄사함과 중생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나(눅23:34; 요3:3,5)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셨다.

(3) 무죄함이 직접 언급되어 있다(고후5:21; 히4:15; 벰전2:22; 요일3:5).

3.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은 성경의 속죄론에 절대 필요하다.

1) 그의 인성의 필요성.

인간이 범죄 하였으므로 형벌도 인간이 당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더욱이 형벌의 감내 에는 육신과 영혼의 고통이 포함되는데, 이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요12:27; 행3:18 히2:14; 9:22).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시되 그 모든 본질적 속성뿐 아니라 타락 후 인성이 처했던 일체의 연약성도 취하시므로써, 인간이 겪은 타락의 밑바닥에까지 떨어질 필요가 있었다(히2:17, 18). 동시에 그는 무죄한 인간이어야 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이고 자기의 생명을 상실한 인간은 타인을 위해 속죄할 수 없음 이 분명하기 때문이다(히7:26). 오직 인류의 고통을 체험적으로 알고 일체의 시험을 극복한 진정한 인간인 중보자만이 인간의 모든 경험 ·환난 ·유혹을 체휼하실 수 있고(히2:17, 18; 4:15-5:2), 그 추종자들의 완벽한 인간적 모 범이 되실 수 있는 것이다(마11:29; 막10:39; 요13:13-15; 빌2:5-8; 히12:2-4; 벰전 2:21).

2) 그의 신성의 필요성.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보자가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함은 절대 필수적이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가 무한히 값진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구속적으로 감당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 이미 성취하신 사역의 성과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기 위해서였다. 파산된 삶에 짓눌린 인간은 짓값을 지불할 힘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능력도 없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으며,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영원히 진노 아래 있어야 하겠지만, 이로부터 탈출구를 스스로 개척하기까지 인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이다(시49:7-10; 130:3).

C. 그리스도의 일위성

주후 451년 칼케돈 회의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교회의 신앙을 공식화하면서, 그에 관해 “양성을 인정하되 두 본성은 혼동되거나 변화하거나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며 (inconfusedly, unchangeably, indivisibly, inseparably), 양성의 구별은 연합으로 인해 결코 말소되지 않고 오히려 각각의 성(性)의 특징이 보존되고, 두 위격으로 분할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위격과 실체로 합치 된다”라고 선언했다. 이 공식적 진술은 대체로 소극적이며, 많은 이단 사설들에 대항하여 단지 진리의 보수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앙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지만 그 속에 포함된 신비 곧 자연적 설명이 불가능한 비밀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 역사의 중심 되는 위대한 기적은, 바르트의 표현을 빌린다면, 한 인격 안에 신인(God and man)이라는 최고 역설의 형태로 그 모든 위엄 가운데 나타났다.

선포된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께서 몸소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이지, 브룬너가 상기시키듯이 인간 예수가 신성을 획득했다는 것이 아닌 것이다. 칼케돈 회의의 선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의 운동 과정을 증거하며, 그 역(평)의 과정이 아니다. 그 후 여러 세기가 지났지만, 교회는 몇 군데 세부 설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칼케돈 신조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교회는 언제나 성육신을 설명 불가능한 하나의 신비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금후에도 불변할 것인데, 그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경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이 수차 시도되었지만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항목들에서 교회의 공식 교리를 약술하고자한다.

1.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교회의 입장

1) 성질(Nature)과 위격(Person)의 용어 정의. 본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용되는 ‘성질’과 ‘위격’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한다. ‘성질’은 어떤 사물로 그 같이 되게끔 하는 본질적 속성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성질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는 실체(Substance)와, 그에 딸린 일체의 근본적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위격(인격)’은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이며, 따라서 그 자신의 행위를 책임 질 수 있는 주체이다. 인격

(personality)은 성질의 근본적 · 필수적 부분이 아니라, 요컨대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위격(인격)은 성질에 무엇을 부가한 것 즉 독립적 실존, 개체 (individuality)이다. 그런데 로고스가 인격화되지 않은, 즉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2)교회적 견해의 명제적 진술

(1) 중보자 속에는 오직 한 인격, 곧 불변하시는 로고스가 존재한다. 로고스는 그리스도의 인격(위격)의 기초가 되신다. 그러나 중보자의 인격을 오직 신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육신을 통해서, 그는 양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적 인격이 되었다. 그는 신인 (GOD-man)인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가 하나의 인간 인격(human personal)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로고스는 인간 인격을 택하시지 않고(그렇다면 중보자 속에 두 인격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인성을 취하셨다. 브룬너는, 우리가 죄악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의 신적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다(또는 차라리 신적 인격이다)는 사실 이야말로 그의 인격의 신비라고 선언하고 있다.

(3)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비인격적(비위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이는 오직 인성이 그 나름의 독립된 실존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만 사실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할 때 그리스도의 인성은 한 순간도 비인격적인 적이 없었다. 로고스는 인성을 취하여 자신의 인격적 존재성에 참여하게 하셨다. 인성은 로고스의 인격 내에서 그 인격적 존재를 갖는다. 요컨대 그것은 비인격적이라기보다 내(內)인격적(in-personal)이다.

(4) 바로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미완성 내지는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의 인성은 그 성질에 속한 모든 본질적 특성들을 빠짐없이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 안에서 개체 곧 위격적 실재(실존)를 가지고 있다.

(5) 이 위격적 실존은 의식 및 자유 의지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본래적 · 독자적으로 위격적 실존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의식과 자유 의지도 갖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이들 요소가 위격보다는 성질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 영원 전부터 인성을 소유하신 한 신적 인격께서 인성을 취하셨으며, 지금은 양성을 모두 소유하고 계신다. 이 사실은, 신적 인격이 인성을 취하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양성이 일종의 신인성(信人性)인 제3의 무엇(tertium quid)으로 융해 내지 혼합되었다고 생각함으로써 양성의 완전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자들에 맞서 주장되어야 한다.

2.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

일위 이성 (-位二性)의 교리는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은 초감각적 실재와 불가해한 신비의 표현이며, 우리의 지각이 미치는 인간사 속에서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고 인

간 이성(二性)에 의해 지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의 교훈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배가되는 것이다.

1) 성경에는 이위성(二位性)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다. 우선 매우 중요한 소극적 고려 사항이 있다. 만일 예수님 안에 이중적 인격이 존재했다면, 당연히 성경에서 그에 관한 모종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단 한 가지 증거도 없다.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하나님의 삼위 간에 한 위가 다른 위에게 말하고 있는바 '나'와 '너'의 구별이 전혀 없다(시2:7; 40:7, 8; 요17:1, 4, 5, 21-24). 더욱이 예수님은 창1:26; 3:22; 11:7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듯 자기를 칭하실 때 복수형을 사용하시지 않았다. 혹 요3:11이 이 같은 실례로 보일지 모른다. 본문의 복수형은 특별한 경우지만, 아마도 니고데모와 그가 대표하는 무리에 대립되는 예수님과 그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 성경에서 이성(二性)은 일위(-位)에 연합되어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두 성(性)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에서 오직 한 인격만을 뜻하고 있음이 극히 분명하다(롬1:3, 4; 갈4:4, 5; 빌2:6-11), 몇몇 구절에서는 두 성이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추상적인 신성이나 어떤 신적 능력이 인성과 결합되었다거나 인성에 현현했다고 가르치지 않고, 언제나 구체적인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인격이 인성과 연합되었다고 가르친다(요1:14; 롬8:3; 갈4:4; 9:5; 딤후3:16; 히2:11-14; 요일4:2, 3).

3) 한 위격이 이성의 어느 한쪽에 관련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한 성(性)의 속성들이 위격에 귀속되는 것으로 서술하면서도 그 위격을 다른 성에서 유래된 칭호로 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적 속성과 행동이 위격에 귀속된 것으로 서술하면서, 그 위격을 신적 칭호로 부르고 있다(행20:28; 고전2:8; 골1:13, 14). 다른 한편으로는 신적 속성과 행동이 위격에 귀속된 것으로 서술하면서, 그 위격을 인간적 칭호로 부르고 있다 (요3:13; 6:62; 롬9:5).

3. 일위(-位)에 이성(二性)이 연합된 결과

1) 신성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다. 창조와 성육신 교리는 항상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하여 문제를 야기했다. 이 점은 불변성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든간에, 신성은 성육신에서 하등 근본적 변화를 겪지 않았음이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신성은 손상 받지 않음, 곧 고난과 죽음에 처할 수 없고 무지에서 자유롭고 연약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성육신이 하나의 인격적 행동 (personal act) 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신성이 육신을 취했다고 하기 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성육신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개혁파 신학자들이 때때로 신성이 성육신했다고 표현할 때 그들은, 스콜라 신학의 용어를 빌린다면,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not immediately but indirectly)' 표현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신성을 절대적이고 본래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들의 위격 속에 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성육신의 결과로 신적 구세주가 무지 · 연약 · 시험 · 고난 · 죽음을 당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의

신성 안에서가 아니라 인성을 갖추심으로써 파생적으로 그같이 되셨다는 것이 다.

2) 성육신의 결과인 삼중 교류(三交流)

(1) 속성간의 교류(communicatio idiomatum)

이 말은 신인 양성의 제 속성들이 이제는 위격의 속성이 되었고, 따라서 위격에 귀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위격은 전 능 • 전지 • 편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비애와 제한된 지식과 능력의 소유자요, 인간적 결핍과 비참에 얽매어 있다고 묘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용어를 신성의 고유한 무언가가 인성으로 전달되었다거나 또는 그 역의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양성의 상호 침투가 일어나서 신성이 인성화되고 인성이 신성화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견해) 것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신은 인간의 연약에 참여하실 수 없고, 인간은 신의 본질적 속성의 어느 부분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2) 업적 또는 사역의 교류(communicatio apotelesm.atum or operationum)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특히 그 사역의 최종 결과(apotelesma)가 신인적 성격을 띠는 의미이다. 이를 분석하면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동력인(動力因 • causa efficiens: 아리스토텔레스의 4 원인설의 하나로 행위자를 의미함-역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분할되지 않은 위격적 주체이다. @구속 사역은 이성(二性)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각 성은 제각기 나름의 특별한 동력 (energeia)을 가지고 사역한다. @이에 불구하고 그 결과는 구분되지 않는 단일체로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단일 위격이 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3) 은사 또는 은혜의 교류(communicatio charismatum or gratiarum)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처음 존재할 때부터 모든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각종 은사로 치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탁월한 은혜 (gratia eminentiae)로 호칭되기도 하는, 신적 로고스의 위격과 연합하는 은혜 (gratia unionis cum persona tou Logou) 이를 통해 인성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이 고양되며, 심지어 찬미의 대상이 된다. @성령의 은사, 특히 지성 • 의지 • 능력으로 구성된 지속적 은혜(gratia habitualis). 이로써 그리스도의 인성은 모든 이지적 피조물 위에 높이 고양된다. 특히 그의 범죄 불가능성(impeccability. non posse peccare)도 여기서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인은 기도의 대상이다. 연합의 또 다른 결과는, 양성으로 현존하시는 중보자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예배의 영예(honor adorationis)는 인성 자체에 속한 것이 아니며, 단지 본질상 경배 받을 만한(adorabilis) 신적 로고스와의 연합 때문에 인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과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우리의 종교적 예배 대상은 신인인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근거는 로고스의 위격에 있는 것이다.

4. 그리스도의 일위성의 신비

이성(二性)의 일위(一位) 속의 연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며, 바로 그 때문에 종종 부정되기도 한다. 그것은 때로, 인간 내부에 영육이 결합되어 있음과 비교된다. 인간은 물질과 영혼의 두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자는 극히 밀접히 결합되어 있지만 혼합되어 있지 않으며, 중보자도 그러하다. 인간의 경우, 결합의 원리인 인격은 육체가 아닌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중보자의 경우에는 인성이 아닌 신성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영과 육의 상호 영향력 행사가 하나의 신비이듯이 그리스도 안의 양성의 관계와 그 상호 영향력의 구조도 그러하다. 육체와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인격에 귀속되듯이 그리스도의 양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그 위격(인격)에 귀속된다.

때때로 어떤 사람을 그의 영적 요소로 부르면서 동시에 육신에 속한 속성으로 묘사하며, 그 역의 경우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를 그의 신성을 따라 호칭하면서 동시에 인성적측 면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그 역의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육신이 그 영혼과 결합하는 것이 그에게 명예이듯, 그리스도의 인성이 로고스의 위격과 연합하는 것도 그러하다. 물론 그 같은 비교는 미흡하다. 그것은 신성과 인성, 무한과 유한의 연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단일 위격 내의 두 영적 성질(spiritual natures)의 연합도 제대로 예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경우, 육체는 물질적이고 영혼은 영적이다. 그것은 경이로운 결합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양성의 연합만큼 놀라운 것은 아니다.

기독론 강의 3 - 비하의 신분

비하의 신분

신분이란 삶에 있어서 사람의 지위(status)나 위치(position)를 뜻하는데 특별히 사람이 법률적 관계에서 갖는 사법적 관례를 뜻한다. 그리스도의 신분의 교리는 실제로 17세기에 와서 발전되었으나 개혁자들의 저서나 심지어 초대교회 교부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여기서 문제로 하고 있는 신분은 중보자의 인격의 신분이요 그리스도의 인성의 신분이 아니다.

성경은 놀라운 대조적 상태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선지자들은 주께서 최대의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과 최고의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았다. 상반된 대조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비하의 신분이다. 비하의 신분이란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최고의 율법 수여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마3:15; 갈 3:13; 4:4; 빌2:6-8).

개혁교회 신학은 빌립보서 2:7-8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비하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케노시스(Kenosis, exinaitio, emptying)와 타페이노시(tapeinosis, humiliation)이다. 전자는 그리스도께서 신적 위엄을 포기하심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을 뜻하며 후자는 율법의 요구와 저주에 예속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난당하심을 뜻한다. 한 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십자가에로의 2중적이다. 개혁파 신학에서는 비하의 신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단계를 말하는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지냄, 음부에 내려가심이다.

1. 성육신

1) 성육신의 주체

(1) 인성을 입으신 분은 삼위 일체 신이 아니라 제 2 위 신이었다. 그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표현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 동시에 삼위 각자가 성육신에 능동적으로 일하셨음을 명심해야 한다(마1:20; 눅1:35; 요1:14; 행2:30, 롬 8:3; 갈4:4, 빌2:7). 이것은 또한 성육신이 단순히 로고스에게 발생한 사건이라기보다 그가 능동적으로 이루신 업적이었음을 의미한다.

(2) 로고스의 성육신은 말함에 있어서 이 역사적 사실이 그의 활발한 참여가 치중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선재가 추상된다. 선재의 존재 없는 자의 성육신을 말하기는 불가능하다(요1:1, 6:38; 고후8:9; 빌2:6,7).

(3) 성육신은 하나님이 능히 또는 현실적으로 피조물과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 한다. 이 교리는 무한자가 능히 또는 실제로 유한적 관계를 가지신다는 것, 초자연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적 사변에 들어온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주체는 유한적

관계와 역사적 사변에 참여하시는 무한 초자연신의 영원성자시다.

2) 성육신의 중요성

(1) 구속사의 중심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모든 역사위에 가장 크게 기발한 사실이며 경건의 비밀이다. 이것은 구속사의 중심이다. 모든 선행 역사는 이것을 준비하고 모든 후속 역사는 이것으로부터 복사되어 나간다. 이것의 뿌리를 하나님의 영원적 심오에 두고 지엽을 장래의 무궁한 영광중에 편다.

(2) 모든 교리와 밀접

성육신의 진리는 신앙 전체계의 모든 교리에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써 중보적 행위마다에, 그의 비하의 신분의 전 역사에, 그의 승귀의 신분의 매 방면에 무엇보다도 복음의 중심인 대리적 제사의 의의와 가치에 이 진리가 밀접히 포함되어 있다. 만일 그리스도가 동일 품위에 신성과 인성을 겸유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죽기 불능 하거나, 그의 죽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가 사람이 아니시면 그의 전 역사는 신화요 만일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를 예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일 것이다. 그러나 그를 예배하지 않는 것은 성부에게 불순종이다(요5:23).

(3) 성경의 명확한 증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선언함에서 성육신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요일4:2,3). 그리고 성경은 이 교리의 진실성을 증언함에 탁월한 명확함과 견실로써 하였다. 구약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여 계시하신 사실을 보도하여 성육신의 진정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성육신의 예표가 언약 천사의 나타남에서 보여 졌다. 그 뿐 아니라 장래 성육신이 사7:14, 9:6; 렘23:6; 미5:2 같은 구절들에 함의 되었다. 최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큰 진리를 상징하는 성막과 성전은 요한이 기술한 승엄한 사실의 명백한 전조였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실을 증언함에 본격적이다.

3) 성육신의 목적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죄인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아니라면 그는 성육신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을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이 있다. 이레니우스와 아다나시우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높여줌을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근세에 와서 술라이어 막허, 어빙 등에 의하여서 재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어디까지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실 인성을 취하는데 있는 것이다. 죄값을 지불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는 인간의 몸을 입으실 이유가 없었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성구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막10:45)

4) 성육신의 필연성

스콜라 신학시대 이래로 성육신을 구속 개념 속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이미 창조 개념 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통속적 표현으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타락이 없었음에도 육체로 오실 것인가의 문제였다. 도이츠의 루페르트는 주께서 죄와는 무관하게 성육신하셨다고 명료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첫 인물이었다. 그의 견해에 헤일스의 알렉산더와 둔스 스코투스가 동조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육신의 이유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견해를 지지했으며 개신교는 인간의 원죄로 인해 성육신이 불가피해졌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오시안더, 로테, 도르너, 랑게, 반 오스터제이, 마르텐센, 에브라르드, 웨스트코트 등의 몇몇 루터파와 개혁파 신학자들은 정반대의 견해를 주장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성육신같이 엄청난 사실은 우연적일 수 없으며 사람의 우발적이고 단독적인 행위의 결과인 범죄가 그 원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초적 계획 속에 포함되었음이 분명하다. 타락 전 종교와 타락 후 종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없다. 만일 중보자가 현재 필요하다면 타락 전에도 또한 필요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속죄와 구원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중보자인 동시에 머리되신다. 그는 창조의 처음이자 마침이다.

그러나 성경이 변함없이 성육신을 인간의 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눅19:10; 요3:16; 갈4:4; 요일3:8; 빌2:5~11과 같은 구절들의 설득력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종종 주장되는 성육신이 본유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고 필요하다는 사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내적 자기계시라는 범신론적 관념에 떨어지기 쉽다. 본 견해에 부담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신적 계획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를 영원의 관점 하에서 고찰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직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태초부터 죄와 성육신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결국 성육신은 구원의 전 사역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어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의의를 가지신다는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 역사 엡1:10; 20~23; 골1:14~20에 기록된 그의 구속적 의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5) 성육신으로 초래된 변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로고스가 전에 향유했던 지위를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본질적인 존재 면에서 로고스는 성육신 이전이나 이후에 완전히 동일했다. 요1:14에 나오는 동사 에게네토("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로고스가 육체로 변화했고 따라서 그 본성을 변질시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가 특수한 성격을 취하셨다는 것 곧 원래적 본성을 변질시키지 않고 추가적 형식을 획득하셨음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그는 무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남으셨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진술은 그가 인간의 인격을 취하셨음이 아니고 또한 반대로 단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의미도 아니다. 본문에서 사르크스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성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롬8:3; 딤후3:16; 요일4:2; 요이7:(비교, 빌2:7)에서 다소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6) 인류의 일원이 되심

재세레파의 지배적 견해는 주께서 그의 인성을 하늘로부터 가져오셨고, 마리아는 단지 그것이 통과한 도관(導管)이었다는 것이었다. 이 견해대로라면, 그의 인성은 진실로 새로운 피

조물이어서 우리의 인성과 비슷하지만 유기적 관련성은 갖지 않는다. 이 견해에 대한 논박의 중요성은 쉽게 알 수 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와 같은 혈통에서 나오지 않고 단지 유사하기만 했다면, 그의 중보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용해야 할 만한 관계가 그와 우리 사이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재세례파의 교설에 반대하여 우리의 신앙고백은 그리스도가 그의 인성을 모친의 실체로부터 취하셨다고 확언한다.

7) 성육신의 방법 - 동정녀 탄생

(1) 사실성

오늘날에 와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경향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마1:18-25; 눅1:26-38; 2:1-7참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마태는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하였고 누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하였다. 추측컨대 마태는 요셉으로부터 누가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로부터 각각 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서 기록한 것으로 보아진다.

(2) 성령의 이중역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성육하신 방식을 진술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탄은 통상한 출생이 아니라 초자연적 출생이며 그 효능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사실에 치중함이다. 이 성탄과의 관련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초자연적 공작이었으니 이 공작을 통해서만 처녀 성탄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성경은 마1:18-20; 눅1:34-35; 히10:5에서 이 특수한 점에 언급한다. 예수의 잉태와 관련된 성령의 역사는 이중이었으니 ①성령이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된 일의 동력인이었고 사람의 동력적 요인은 제외되었다. 이것은 인적 품위가 아니라, 신적 품위, 행위 언약에 포함되지 않고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신 성자의 강탄에 전적으로 조화되는 일이었다. 「그리스도의 처녀 성탄은 삼위일체의 제3위에 의해 행해진 이적이었으니 이것에 의해 삼위일체의 제2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그 자신에 인성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다」 ②성령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 시초에서부터 성화하시어 죄의 오염을 면케 하셨다. 성령의 이 성화역사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정확히 말하기 불능함은 죄의 오염이 어떻게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전되는지 우리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때문이다. 마리아로부터 인출된 그리스도의 인성이 전자의 원죄의 오염을 면한 것은 성령잉태 때문이라고 자주 말하나 성령이 그것을 면케 해주신 방식이 어떠하였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성령의 성화적 감화는 예수의 잉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하여 계속하였다. 그는 성령의 감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며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요3:34; 히9:14)

8) 성육신의 비하성

(1) 성육신 자체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일부인가, 아닌가? 루터파에서는 성육신과 비움을 구별함으로써 이를 부정하고 그들의 부정의 근거를 비하는 지상생애에만 국한되지만 그의 인성은 천국에서도 계속된다는 사실에 두고 있다. 그는 지금도 인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더 이상 비하의 신분에 처해 계시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도 다소 견해차가 있었다. 이 문제는 잘 분별해서 답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상적 의미로서의 성육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을 입으신 단순한 사실은 비록 겸비의 행동

이었지만 그 자체가 비하는 아니었다.

(2) 그러나 로고스가 육신, 곧 타락한 후에 약화되어 고난과 죽음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육체(비록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를 취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의 비하였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였다(빌2:6~8). 또 사도 바울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나하게 되셨다"고 말하였다(고후8:9). 이러한 성구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비하의 신분임을 암시해 준다.

2. 수난

1) 전 생애의 수난

예수께서 그의 생애 말기에 와서야 그의 임박한 고난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종종 말년의 고통이 그가 받으신 고난의 전부였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의 전 생애가 곧 고난의 일생이었다. 그것은 만군의 주의 종 된 생활이었고, 무죄하신 이가 날마다 죄인들과 어울려야 했던 삶이며 죄로 저주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영위해야 했던 삶이었다. 그로서는 순종의 길이 곧 고난의 길이였다. 그는 사탄의 반복된 공격과 동족의 증오와 불신, 원수들의 핍박으로 고통당하셨다. 그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므로 그의 고독감은 극심했고 책임감은 압도적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의 고난은 성별된 고난으로서 끝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가혹해졌다. 성육신에서 시작된 고난은 그의 생애 끝의 대수난에서 마침내 절정에 도달하였다. 그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일체가 그의 일신에 지워졌던 것이다.

2) 전인의 수난

그리스도의 수난은 육체적, 외형적인 것 일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을 포함하는 전인적 수난이었다. 그는 육신적인 면에서 어려서부터 피난을 해야 했고 (마2:14,15), 광야에서 주리셔야 했고(마4:2), 피곤하셨으며(요4:6) 특히 십자가에서 그 고통은 절정에 달하였다. 또 한 편으로 그는 영적, 정신적인 면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으며 (마26:38; 요12:27), 심한 통곡과 눈물을 금치 못하셨으며(히5:7)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다 (마27:46).

3) 시험의 수난

그리스도께서 수난의 도중에서 만나신 시험들은 그의 수난의 중요 부분이었다. 그의 공생애 사역은 일정한 기간의 시험으로 시작하였고 그 후에라도 시험들은 이따금 반복 되다가 흑암한 겟세마네에 까지 이르렀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히2:10). 오직 사람들의 시련에 그들의 시험에 참여하심으로만 예수께서 참으로 동정적인 대제사장이 되시어 시련되지 않은 무죄상태와 구별되는 정련 또 승리한 덕의 완전함에 득달하실 수 있었다.(히4:15; 5:7-9).

4) 고난의 원인

요컨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은 그가 죄인들을 대신하셨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근접한 원인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우주의 주재였던 분이 비천한 지위, 심지어 종이나 노예의 지위에 처해야 했고, 또한 선천적 명령권을 가지신 분이 복종의 의무 아래 놓이셨다는 사실, ②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 죄악 되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 날마다 죄인들과 교제해야 했고, 그의 동시대인들의 죄로 인해 그가 짊어져야 했던 엄청난 죄책을 끊임없이 기억하셨다는 사실, ③ 그의 생애의 시초부터 마지막에 그에게 엄습할 극한적 고난을 완전히 알았고 명확히 기대하심, 그는 자기가 장차 당할 일을 정확히 아셨는데, 전망은 지극히 어두운 것이었다. ④ 마지막으로 생활의 빈곤, 마귀의 시험, 동족의 증오와 배척 및 그가 당해야 했던 냉대와 박해들.

5) 독특한 수난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일상적' 고난에 관해 말하는데, 이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비극의 원인들로 부터 비롯된 고난을 염두에 두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구세주의 고난의 원인이 우리들보다 훨씬 많음을 기억해야 한다. 더구나 이들 일반적 고난들도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특출한 성격을 가졌고 따라서 독특한 것들이었다. 그의 고난 받는 능력은 그의 이상적, 윤리적 완전성, 공의, 거룩, 진실에 대한 판단력에 비례했다.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고통, 비애, 도덕적 사악의 통렬한 아픔을 절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비교적 일반적인 고난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로 홍수처럼 그를 뒤덮게 하심으로써 일어난 고난도 있었다. 구세주의 고난은 순수 자연적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 행위의 결과이기도 했다(사 53:6,10). 구세주가 당하신 좀 더 특수한 고난으로서는 광야에서의 시험,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의 고뇌를 들 수 있다.

6)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수난

그리스도의 수난은 임의적인 것이거나 그 분의 자유 의지에 따른 수난이 아니었다. 물론 이 수난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요 그의 자발적인 복종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수난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수난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수난은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구속언약에서 성자가 받은 언약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이었던 것이다.

7)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수난

그리스도께서 받은 수난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수난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죄인으로서의 형벌을 받으셨다(고후 5:21, 사 53:12, 마 27:46).

3. 구세주의 죽음

구세주의 고난은 마침내 죽음으로 끝맺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 그의 죽음의 범위

이 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논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당연히 육체적 죽음 곧 영육의 분리를 염두에 두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죽음의 개념은 이것이 전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종합적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육체적 죽음은 단지 그 나타남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 분리이지만, 이 분리를 상이한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자연적 결과가 사망이므로, 심지어 죄가 곧 사망이라고까지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에 굴복하게 된 경위는 그와 달랐는데, 왜냐하면 그는 개인적으로 범죄를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죽음은 단지 죄의 자연적 귀결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사법적으로 부과된 형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삶의 좋은 것들과 행복을 거두시고 그 대신 진노로 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같은 사법적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중보자에게 사망의 형벌을 내리셨으니, 왜냐하면 후자가 자원하여 인류의 범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타락 이래로 추가된 일체의 연약성과 함께 취했고, 이로써 죄악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므로, 결과적으로 사망이 처음부터 그의 속에서 역사했고 그가 당하신 수많은 고난 속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를 아는 분이였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그가 지상에서 사신 전 기간 동안, 특히 생애 말년에 그가 몸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라고 정확히 진술하고 있다. 이 같은 고난에 그의 십자가 죽음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가 아니었으니, 그가 겻세마네 동산에서 고투하실 때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는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 당하신 것이다 (비록 이는 내포적(intensive) 측면에서였지 외연적(extensive) 측면은 아니었지 만). 짧은 기간에 그는 죄에 대한 무한한 진노를 담당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다. 이것은 오직 그의 승화된 본성 덕택에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경우 영원한 죽음은 로고스와 인성 사이의 연합의 와해나, 신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천부의 신적 사랑이나 기쁨을 중보자의 위격으로부터 거두어감을 의미하지 않는다. 로고스는 육신이 무덤 속에 있는 동안에도 인성과 여전히 연합되어 있었고, 신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었으며, 중보자의 인격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중보자의 인간적 의식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God-forsakenness) 느낌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인성이 잠시 동안 신적 로고스와 연합에서 유래하는 의식적 평안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상실하고, 자기 위에 임해 오는 충만한 신적 진노를 고통스럽게 인식했음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절망은 없었으니, 가장 암담한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부르짖으면서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2) 그의 죽음의 사법적 성격

그리스도께서 자연적이거나 우발적인 죽음을 맞지 않고, 자객의 손에 살해당하지도 않고,

법정의 판결에 의해 돌아가시는 것이 절대 필수적이었다. 그는 불법자로 간주되고 범죄자로 정죄되어야 했다. 더구나 로마인 재판관에 의해 재판되고 선고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이었다. 로마인들은 법과 재판 방면에는 특출 했고, 세상에서 최상의 사법권을 대표하고 있었다. 로마인 재판관 앞에서 받는 재판은 예수님의 무죄를 밝히 드러낼 것이 뻔한데, 실제로 그같이 되었고, 따라서 그가 자기의 범죄로 인해 정죄되신 것이 아님이 명약관화해졌다.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사실을 증거 해준다. 그리고 로마인 재판관이 그분의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 그는 또한 자신과 자신이 적용했던 인간적 공의를 정죄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그의 이름으로 공의를 집행하는 지상 최고의 사법적 권력의 대표자로서 예수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빌라도의 판결은 비록 근거는 전혀 달랐지만 또한 하나님의 판결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참수되거나 돌에 맞아 돌아가시지 않은 것도 의미심장한 일이다. 십자가형은 유대의 형벌이 아닌 로마의 형벌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악명 높고 수치스러운 형벌로 간주 되었으므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오직 인류의 찌꺼기 곧 가장 무가치한 범죄자와 노예들에게만 적용되었다. 그 같은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극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동시에 그는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그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실증하신 것이다(신21:23; 갈3:13).

4. 구세주의 장사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비하의 마지막 단계로 보일지 모른다(특히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 중 하나인 "다 이루었다"를 볼 때). 그러나 그 말씀은 필시 그의 능동적 고난 즉 그 자신이 능동적 역할을 담당하신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종결되었다. 그의 장사도 그의 비하의 일부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하라.

1) 인간이 자기가 유래했던 흠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죄의 형벌의 일부로 묘사되고 있다(창3:19).

2) 성경의 몇몇 구절은 구세주가 무덤에 계신 것도 비하의 한 형태였음을 암시해준다 (시 16:10; 행2:27, 31; 13:34, 35). 그것은 무섭고 음침하며 부패의 장소였던 음부(hades)로 내려가심이었다 (비록 그곳에서도 그는 썩지 않으셨지만).

3) 매장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므로, 따라서 비하의 일종이다. 시체의 매장은 죄인의 비하를 상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풍습이다.

4) 구원의 객관적 사역의 제 단계와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관적 적용 순서 사이에는 일치점이 있다. 성경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는 옛사람을 벗는 것이지, 새사람을 입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참조. 롬 6:1-6). 따라서 예수님의 매장도 그의 비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의 장사는 단순히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셨음을 입증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무덤의 공포를 제거하며, 그들을 위해 무덤을 성화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5. 구세주께서 음부로 내려가심

1) 사도신경(Apostolic Confession)에 나타난 본 교리

사도신경은 주님의 고난, 죽음, 장사 지냄을 고백한 후 뒤이어 '지옥(음부)에 내리우사'라고 진술한다. 이 문구는 다른 구절들만큼 초기부터 보편적으로 신경 속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것은 아렐레이아 양식의 신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descendit in inferna, 주후 390년 경). 헬라인들 가운데 흑자는 '지옥(inferna)'을 '음부(hades)'로, 또 흑자는 '하계(下界, lower parts)'로 번역했다. 이 용어들이 발견되는 몇몇 양식의 신경들은 그리스도의 매장을 언급하지 않았음에 비해, 로마와 근동 양식의 신경에서는 대체로 매장은 언급하되 음부에 내려가심을 빠뜨리고 있다. 루피누스 (Rufinus)는, '장사되고'라는 표현 속에는 음부로 내려 가셨다는 개념도 포함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후대의 로마 양식의 신경에서는 매장에 관한 진술 다음에 문제의 진술이 추가되고 있다. 칼빈은, '장사되고' 다음에 이를 삽입한 사람들은 뭔가 추가적인 내용을 뜻하였으리라고 정확하게 논급하고 있다. 명심할 것은, 이 구절 들이 성경 속에는 나오지 않으며, 따라서 사도신경의 다른 조항들만큼 성경의 직접적 진술 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2) 이 표현의 성경적 근거. 이 문제에서 특히 고려 대상이 되는 네 구절이 있다.

(1) 엡4:9. "올라가셨다 하였던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구절에서 근거를 구하는 사람들은 "땅 아랫 곳"을 음부와 동의어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는 미심쩍은 해석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올라가심은 내려가심을 전제로 한다고 변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올라가심의 반대는 성육신이다(참조. 요 3:13). 고로 대다수의 주석자들은 이 표현을 단순히 지상(the earth)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표현은 아마 시 139:15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육신을 가리킨다.

(2) 벰전 3:18, 19.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고 진술한다. 이 말은 음부로 내려가신 사실과 그 목적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문에 기록된 영은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이해되며, 전파하심은 그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앞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것이다. 본문에 기록된 영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 (quickening Spirit) 이며,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영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파하셨다. 본문에 대한 개신교의 일반적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노아를 통해, 홍수 전에 살았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그들은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 시에는 음부에 갇힌 상태였고 따라서 이와 같이 불릴 수 있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 다. 바빙크는 이 같은 해석은 지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본문은 승천을 가리키며, 승천 자체가 옥에 갇힌 영들을 향한 풍부하고 개선적이며 힘 있는 복음 전파였다고 주장했다.

(3) 벰전 4:4-6. 특히 6절은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 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관련하여 사도는 독자들에게 남은 일생을 육적으로 인간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비록 이전 친구들을 불쾌하게 하고 그들의 비방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

다고 경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행위를 직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전파된 '죽은 자들'은 전파될 당시에는 아직 죽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이 전파의 목적의 일부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에만 일어날 수 있다. 아마도 저자는 앞장에서 언급한 옥에 갇힌 바로 그 영을 가리키고 있 는듯하다.

(4) 시16:8-10 (비교 행2:25-27, 30, 31) 여기서 특히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10절이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피어슨(Pearson)은 이 구절로부터 그리스도의 영혼이 부활 전에 지옥(하데스)에 계셨다고 결론짓는데, 왜냐하면 본문이 그것(영혼)이 그곳(스올)에 남겨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a) 히브리어에서 네페워(영혼)는 종종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며, 스올은 죽은 상태를 의미하 는 데 사용된다.

(b) 만일 본문에서 이 단어들을 그같이 이해할 경우, 그것은 명백한 동의어 병행법 (parallelism)의 실례가 된다. 본문이 나타내는 사상은 예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 내맡겨지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c) 이는 행 2:30, 31에 기록된 베드로의 해석과 행 13:34, 35에 기록된 바울의 해석과 완벽 하게 조화된다. 양자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 본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

3) 이 신경적 표현의 다양한 해석

(1) 카톨릭교회는 이 귀절을 해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신 곳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의 구속의 계시와 적용을 고대하고 있는 선조림보이며, 그는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내어 천국으로 들여보내신 것이라고 하였다.

(2) 루터파는 지옥에 내려가심을 그리스도의 승귀의 첫 계단으로 간주한다. 그리스도는 하계 에 가서 사탄과 흑암의 군세에 대한 그의 승리를 계시하시고 완성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정죄하는 선고를 선포하셨다. 어떤 루터파 사람들은 이 승리적인 행진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중간에 두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활 다음에 두고 있다.

(3) 영국교회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의 신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에 그의 영혼은 지옥보다 특별히 의로운 자의 영혼의 거처인 낙원에 가서 그들에게 보다 충분한 진리의 해석을 하셨다고 하였다.

(4) 칼빈은 이 귀절을 비유적으로 보아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초를 맛보신 십자가 위에서 의 형벌적 수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이와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44조). 통상적인 개혁파의 입장에 의하면 이 말들은 십자가 위에서의 수난 뿐만 아니라 갓세마네의 고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5)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더 욱이 견해에 대한 중대한 반대들이 있다. 그는 몸을 따라 지옥에 내려갈 수 없으셨으니 몸

은 무덤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실제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면 그것은 단지 그의 영혼에 관해서일 뿐이며 또한 이것은 단지 그의 인성의 반쪽만이 그의 비하(또는 승귀)의 단계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는 한 루터파가 추상한 것과 같은 승리적인 행진의 때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의 때에 그의 영을 아버지에게 부탁하셨다. 이것은 그가 무덤에서 사실 때까지 그의 죽음의 때로부터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이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체로 두개의 사상을 결합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인다. 즉, 두개의 사상이란

(a)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죽으시기 전에 겿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난을 맛보셨다는 것과

(b) 그가 죽음의 상태의 가장 깊은 비하에 들어가셨다는 것이다.

기독론 강의 4 - 승귀의 신분

승귀의 신분

개혁파 신학은 신인인 중보자의 위격을 승귀의 주체로 간주하면서도, 승귀가 일어난 것은 인성이었다고 강조한다. 신성은 비하나 승귀가 불가능하다.

승귀에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1) 계약적 · 형별적 측면에서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셨고, 그 결과, 행위 언약의 조건이 되는 율법의 무거운 요구와 저주를 벗어 버리셨다.

(2) 율법과의 형별적 관계를 공의적 관계로 대신하셨으며, 죄인들을 위해 획득하신 구원의 복을 중보자의 자격으로 소유하셨다.

(3) 이에 합당한 명예와 영광으로 관 쓰셨다. 승귀는 죄의 저주가 탕감된 그의 상태 안에도 나타나야 했다. 그의 승귀는 또한 그의 영화(榮化)이기도 했다.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풍부하다. 복음서의 기사는 그리스도의 비하 다음에 승귀가 뒤따랐음을 밝히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고전적 성구가 빌2:9-11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외에도 막16:19; 눅24:26; 요7:39; 행2:33; 5:31; 롬8:17, 34; 엡1:20, 4:10; 딤후 3:16; 히 1:3; 2:9; 10:12 등의 구절을 들 수 있다. 두 신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승귀 신분은 비하 신분의 공의로운 결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자격으로 율법의 계약적 · 형별적 요구를 만족시키사 죄의 형벌을 치르시고 영생의 공로를 쌓으셨다. 그러므로 그의 칭의와 보상이 뒤따랐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공적 인물이었고 그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이루셨으므로, 마땅히 승귀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스도의 승귀는 삼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매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음과 따라서 상급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하나님의 사실상의 선언이었다. 처음 두 단계도 역시 모범적인 의미를 내포했는데, 그것은 신자들의 생활 속에 발생할 일을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으로, 네 단계 모두가 섭리적으로 신자들의 완전한 영화(榮化)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1. 부활

1) 부활의 성격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다시 사셨고 영육이 재결합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함축된 의미의 전부라면, 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전 15:2)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골1:18; 계1:5)라고 불리실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부활은, 영육이 생명 있는 유기체로 재결합하면서 인성이 영육 면에서 공히 그 원초적인 능력과 완전성을 회복했고, 심지어 더욱 높이 승화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일반적 부활 시에 신자들의 육체에 일어나는 변화로부터 유추해 보면, 그리스도께 반드시 일어났음직한 변화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바울은 고전 15:42-44에서, 신자들의 장래의 몸은 썩지 않고(부패가 불가능함), 영광스러우며 (천상의 광채로 빛남), 강하고(능력과 아마도 새로운 기능으로 충만), 신령할

것이라고(비물질적이거나 영체적(ethereal)인 것이 아니라 영에 합당한, 성령의 완벽한 도구가 됨)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복음서의 기사에서 예수님의 몸이 현저하게 변화되었고, 그 결과 쉽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갑작스럽게 출현하실 수 있었음과 (눅24:31, 36; 요20:13, 19; 21:7) 그럼에도 그것은 물질적이고 지극히 실제적인 몸이었음(눅24:39)을 알게 된다. 이것은 고전 15:50과 모순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혈과 육'은 인성의 현재적인 물질성과 필멸성(必滅性)과 부패성을 묘사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들 안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이다. 이와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변화도 육적인 동시에 영적이었다. 그 속에서 어떠한 종교적·윤리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미래의 천상적 환경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새로운 풍성을 부여 받으신 것이다.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살려 주는 영(고전 15:45)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삼중적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최후의 대적이 정복되고 짓밟히지 불되었으며 생명의 약속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천부의 선언이었다. @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의 지체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 곧 칭의, 신생, 미래의 복된 부활을 상징했다(롬6:4, 5, 9; 8:11; 고전 6:14; 15:20-22; 고후4:10, 11, 14; 골2:12; 살전4:14). @그것은 또한 그들의 칭의, 중생, 최후의 부활과 도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롬4:25; 5:10; 엡 1:20; 빌3:10; 벤전1:3).

2) 부활 사건의 주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 그는 스스로 부활이자 생명이라고 칭하셨으며(요11:25), 생명을 버리고 다시 취할 권세를 자신이 가졌다고 선언하셨으며(요10:18), 심지어 그의 몸 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예언하셨다(요2:19,21). 그러나 부활은 그리스도만의 단독적 사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종종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고 있으며(행2:24, 32; 3:26; 5:30; 고전6:14; 엡1:20), 보다 구체적으로는 천부의 소관으로 돌리고 있다(롬 6:14; 갈 1:1; 벤전 1:3). 그리고 만일 부활을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성령도 그 속에서 일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외향적 사역(opera ad extra)은 삼위 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롬8:11에도 이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3) 부활 교리에 대한 반론들

큰 반론 하나는 육체 부활 교리에 대한 것인데, 곧 육체는 사후에 분해되며, 그 다양한 구성 입자들은 다른 동식물과 인체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몸의 일부를 구성했던 이들 미립자들을 전부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킨토쉬는 질문한다. '예수의 지상적 몸을 구성했던 탄소, 산소, 질소 및 여타의 원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임을 인정한다. 그것은 기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부활체와 매장되었던 몸이 동일하다고 해서 양자가 정확히 동일한 입자로 구성되어야 함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 신체의 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동일성은 보존되는 것이다.

바울은 고전 15장에서 무덤에 내려간 몸과 부활한 몸의 본질적인(essential) 동일성을 주장하지만, 동시에 형태는 변화한다고 (form changes) 역설하고 있다. 사람이 밭에 뿌린 씨앗은 죽음의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그가 밭에 뿌린 씨앗과 일정한 시간 후 수확

한 곡식은 같지 않다. 하나님은 각각의 씨앗에 고유의 품을 부여하신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신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그 정체성(identity)을 보존하는 모종의 핵이나 배종이 존재하는 것 같다. 고전 15:35-38에서 사도가 주장하는 논리에는 그와 유사한 점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활에 대한 참으로 근본적인 반론은 그 초자연성에 대한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부활을 용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증거의 결여가 아니고, 기적이란 있을 수 없다는 근본적 신조이다. 심지어 자유주의 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만큼 충분히 입증되는 사건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물론 흑자는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현대의 학자들에게 이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래쉬달 박사(Dr. Rashdall)는 말한다. '비록 이보다 50배나 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해도 다른 어떤 가설도 이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자기들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솔직하게 선언하고 있다.

4) 부활 사실을 달리 설명하려는 시도들

(1) 기절설(氣絶設) -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따름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예수의 사형이 당시의 큰 관심사였으므로 죽지 않은 상태에서 무덤 속에 둘 수가 없었고, 설사 기절에서 깨어났다 할지라도 돌로 된 무덤의 무거운 입구를 혼자서 열 수 없었을 것이다.

(2) 도적설(盜賊設) - 초대 교회 때부터 유포(流布)되어 있었던 주장으로(마28:11-15),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사체를 훔쳐간 후 부활을 날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극한 공포에 사로잡혀 피신 상태에 있었고 무덤에는 파수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에 제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 부활을 전파하다 순교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부활을 진리로 믿었다는 증거가 된다.

(3) 착각설(錯覺設) - 예수의 무덤을 찾은 자들이 다른 사람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가 부활한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수의 빈 무덤은 장사지냄을 목격한 여자들에 의해(마27:61) 확인 되었고(마28:1-6) 그 이후 제자들이 다시 찾았을 뿐 아니라(요20:1-8) 당시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과 이들을 고용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증언 등을 보아 착각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마28:11-15).

(4) 환상설(幻像設) - 그리스도의 부활을 갈망하던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 사람에게 의해 목격되었고, 특히 이를 회의하였던 바울이나 의사 누가가 훗날 이를 받아들인 것이 이 주장의 신빙성을 없게 한다.

(5) 강령설(降靈設) - 예수를 강령술사로 보고 죽은 예수의 영혼이 본래의 형상을 지닌 채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본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져질 수 있는 육체를 지녔으며 밤낮 구별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강령술적 현상과 모순을 일으킨다.

(6) 신화설(神話設) - 당시 인접 여러 나라에 유포된 부활 신화가 예수의 죽음에 도입되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역에 예수의 부활에 비견될 수 있는 신화가 존재하였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성경 기록의 현장성(現場性) 등은 이를 부인한다.

(7) 사기설 - 이 설은 예수나 그의 제자들이 온갖 것을 지어냈다고 봅니다. 이설에 따르자면, 그리스도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읽었고 그것들이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각색하였던 영리한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기꾼이 자신의 태어날 곳까지 적절하게 뜯어내추기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며,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그의 뼈를 꺾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5) 부활의 교리적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믿거나 아니면 한갓 관념적 부활을 믿거나 간에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것이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 측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생존으로서의 의미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의 신앙에 아무런 참된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육체 부활에의 믿음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기독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생략해 버릴 수 있다고 한다. 바르트와 브룬너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그들은 부활의 역사성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역사의 문제로서, 역사가가 재능껏 다룰 일이지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요한 요소는 부활 사건에서 신성이 역사의 과정 속으로 뚫고 들어온 것과, 이로써 예수님의 미지성(未知性, incognito)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이다. 역사가들은 이를 서술할 능력이 없지만, 신자들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부활 신앙은 분명히 교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인하면 성경 저자들의 진실성도 공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부활을 분명히 사실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활이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요나의 표적)이며 하나님의 참 아들이셨음(롬 1:4)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것은 또한 영생의 사실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활이 구속 사역의 핵심, 따라서 복음의 핵심에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한 기초석 중의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효력을 가지려면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종결되어야 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천부의 주인이자, 그것을 열납하셨다는 공적 선언이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셨다. 끝으로, 부활은 다시 사시고 승귀하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와 우주적 주님으로서 새로운 삶에 들어가심이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구속 사역의 성과를 베푸실 수 있게 해주었다.

2. 승천

1)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경에서 부활만큼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필시 승천보다는 부활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 진정한 전환점이었기 때문인 듯하다. 어떤 의미에 서 승천은 부활의 필수적 보충이며 완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더 높은 영광의 단계로의 전이는 부활에서 시작되어 승천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이는 승천이 독립적 의의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비록 승천에 관한 성경적 증거가 부활만큼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한 것이다. 누가는 이에 관해 두 차례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눅24:50-53: 행 1:6-11). 마가는 16:19에서 이에 관해 언급하지만, 이 구절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 이에 관해 말씀하셨다(요 6:62: 14:2. 12: 16:5. 10. 17:28: 17:5: 20:17). 바울은 이를 거듭 언급했으며(엡 1:20: 4:8-10: 딤펴전 3:16). 히브리서는 승천의 중요성에 주의 를 환기시키고 있다 0:3 : 4:14: 9:24).

2) 승천의 성질 - 부활40일 후 그리스도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의 호위를 받 으며 승천하셨다. 즉 이는 혹자가 주장하듯이 환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엄연한 역사적 사건 이었던 것이다.

(1) 전위(全位)의 승천 - 신성(神性)만이 하늘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인성(人性)조차 승천에 포 함되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인성을 지닌 채 이루어질 것을 보여 준다(행1:11).

(2) 문자적 승천 - 그리스도는 성경이 묘사하는 그대로 '하늘로(행1:11)', 즉 '위로'올라가셨다 (엡4:8). 이처럼 승천은 영적인 의미나 상징적 의미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분명한 문자 그대로 하늘에 올리신 것이다.

(3) 유형적(有形的) 승천 - 승천은 영적 식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유형적 형태로, 즉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 준다(행1:11, 계1:7).

(4) 장소적 승천 - 루터파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단순히 상태의 변화로만 본다. 즉 인성 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공간적 제한을 받아오셨으나 승천하심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영원히 편재(遍在)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승천은 성경의 묘사와 같이 '세상 을 떠나(요16:28)' '하늘로' 올리신(행1:11) 것이며, 이때 구름이 제자들의 시야를 막았다(행 1:9). 즉 그리스도는 세상을 떠나 처소를 예비하려고(요14:2,3) 하늘에 오르신 공간적 의미에 서 승천하신 것이다.

3) 승천의 의의 - 다른 교리와 마찬가지로 승천 역시 여러 교리와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 특 히 이는 성도가 지향하는바 영광된 미래와 관련되므로 더 큰 관심이 집중된다 하겠다.

(1) 하늘 본향(本鄉)의 존재 - 승귀의 신분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죄가 범람하는 이 세상에 계시는 것은 적당치 않다. 즉 원래 신분을 회복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질고가 없는 곳에 거처하시게 된 것이다. 이는 인간이 성화(聖化)된 후 장차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악과 관계없는 정화(淨化)된 곳을 보여 준다 하겠다.

(2) 구속 사역 완성의 실증 - 지상에서 성부가 계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감은 성육신하신 그 리스도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보여 준다.

(3) 메시아 왕국의 속성 계시 -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 지상에 이루어질 다윗 왕국의

재현으로 보았다. 그러나 승천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요19:36).

(4) 대제사장 사역이 수행 - 구약의 대제사장이 짐승이 피로 제사 지내며 일 년 일차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감과 같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 가셨다(히9:12). 이는 그리스도가 구약이 제사장이 수행한 속죄사역의 완전한 수행자이며 동시에 오늘날에도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대언자(代言者)이심을 보여 준다(요일2:1).

(5) 구원의 실시 -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자가 역사 가운데서 수행하기로 한 객관적 구속 사역을 끝내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어 성령이 그 효력을 구원받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짐을 예시한다(요16:7).

(6) 성도의 영화(榮化)에 대한 예표 -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이루어질 성도의 부활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시민 됨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를 지닌다(요17:24; 엡2:6).

(7) 처소의 예비 - 장차 사단과 그에 속한 무리들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계20:7-10) 의인은 신천선지에서(계21:1-4) 영원히(계21:3,4) 영화롭게 된다(계21:2, 11, 18, 21). 그리스도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 승천하셨다(요14:2, 3).

4) 승천의 의미(Significance)

(1) 지상사역의 종결과 천상사역의 시작 -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자신의 지상사역의 종결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므로 그의 사역으로부터 은퇴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종결은 곧 천상사역의 시작으로 이어져 지금은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왕(king)으로서 영적으로 통치하시며, 대제사장(highly priest)으로서 기독신자들을 위하여 대언대도하시며, 선지자(prophet)로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2) 영광(Glory)의 회복 - 태초부터 자신의 영광을 소유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일시적으로 숨겨져 있었다. 그의 승천은 도성인신하시기 전의 영광을 회복한 것이다(요 17:5). 이것은 지상생애 속에서 감추어진 영광의 재현이다. 또한 이 영광은 구속사역의 성공적 완성을 의미하는 승리의 영광이기도 하다(빌 2:9-11).

(3)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 - 주님의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작별시에 자신 이외에 다른 보혜사(another Counselor)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후 10일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님은 오순절 날 강림하셨다. 보혜사(The Counselor)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서 도모자,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안위자를 뜻한다. 보혜사 성령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중생시키며, 신자들의 영혼 좌소에 내주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항상 같이 하신다(요 14:16, 17, 26; 15:26; 16:7,13; 행 1:5; 2:1-4; 33-36).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지역(地上使役)을 수행하실 때에는 외적 교훈과 실물교수로서 역사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신자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

(4) 세계선교(World Mission)의 새로운 장 - 주님의 승천은 교회의 세계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을 물 붓듯 부어 주셨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적 생활에 큰 변화(Inner transformation)가 일어났으며, 이 내적 변화는 외적 세계선교의 박차를 가하는 효과적 원인이 되었다.

(5) 재림(The Second Coming)의 약속 -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마 24:30; 25:31; 26:24; 막 9:1). 예수 그리스도는 열한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이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고 선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지상의 성도들과 기쁨으로 상봉할 것을 약속하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지상 천년 통치 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천과 영광을 확실히 보장한다(요 17:24; 히 6:19-20).

3.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1) 성경적 증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심문 당하실 때 그는 자신이 장차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고 예언하셨다(마 26:64).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다(행 2:33-36; 5:31), 비록 앞 절(64절)은 지역으로 해석하는 편이 우세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도구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단어는 엡 1:20-22; 히 10:12; 벰전 3:22; 계 3:21; 22:1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이 구절들 외에도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에 관해 언급하는 몇 구절이 있다(롬 14:9; 고전 15:24-28; 히 2:7, 8).

2) 재위(在位.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

(1) 그리스도의 재위는 시편 110:1(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 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의 성취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위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5)라고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2) 하나님 우편(right hand of God)이란 구약 시편 110:1에서 인출되었다. 그리스도의 재위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은 문자적으로 이해될 것이다. 하나님 우편이란 그리스도의 신분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권위(honor and authority: 왕상 2:19; 시 45:9; 110:1), 능력과 위엄(power and majesty)을 가리킨다고 주석가들은 해석하였다.

(3)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란 말씀이외에도 "우편에 계신다"(롬 8:34; 벰전 3:22), "서서 계신다"(standing, 행 7:56), 또는 "일곱 촛대 사이에 왕래 하신다"(계 1:12; 2:1)라고도 말씀하였다.

(4) 바빙크(Herman Barvinck) 박사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위를 명확히 가리킨다는 것을 진술한 후에 매우 조심하여 추가하기를 "하나님의 우편이 하늘에 있는 한 특수한 처소를 지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편의 재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특정한 방향에 계신다기 보다는 오히려 상징적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지배자로서의 최고 권능의 위치에 있음을 가리킨다.

(5) 재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비유적 표현이다. 즉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 신인동형동성론적(神人同形同性論的)으로 신적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성자가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을 말 그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무한성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즉 이는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공적으로 위임받았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칼빈은 "그는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임명하시고 그에게 위임된 통치권을 정식으로 허락 받으시되 그가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계속하기로 하신 것"이라 하였다고 한다.

3) 앉으신 동안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단지 피동적으로 신적 주권, 능력, 위엄, 영광을 받아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의 중보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마땅히 강조되어야 한다.

(1) 성경은 매우 빈번하게 그리스도의 앉으심을 그의 왕적 통치와 연결 짓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의 왕적 사역을 먼저 고찰해야 한다. 그는 그의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보호하시며, 또한 그가 임명한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리신다. 그의 수하에는 천상의 모든 세력들이 집결되어 있다. 천사들은 그의 사자로서 항상 성도들에게 그의 복을 전하고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자연계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시며, 최후의 원수를 굴복시키실 때까지 계속 통치하실 것이다.

(2) 그러나 그의 사역은 왕적 통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계승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는 그의 제사장 사역이 끝났음을 뜻하지 않고 단지 그의 능동적 고난이 종결되었음을 말씀한 것이다.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그의 제사장 사역에 연결되고 있다(속 6:13; 히 4:14; 7:24, 25; 8:1-6; 9:11-15, 24-26; 10:19-22; 요일 2:2).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죄 은혜의 허락을 위한 충분한 근거로서 천부께 그의 완성된 제물을 드리고 계신다. 그는 부단히 그의 제사 사역을 적용하시며, 이를 죄인들의 칭의와 성화에 유효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 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며, 그들이 그의 완성된 희생 제사에 근거하여 용납되고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그들의 기도와 봉사가 하나님께 열납되도록 간구하신다.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소리와 실상 (vocalis et realis)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개혁신파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천부와 함께 인간의 본성 속에 임재해 계신다는 데에 기인한다는 사실과, 기도란 탄원이라기보다 적법한 요구 제시로 간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그리스도는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그의 예언 사역을 계속하신다. 제자들을 떠나가시기에

앞서, 그는 그들의 기억을 돕고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며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부요케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요 14:26; 16:7-15). 그 약속은 오순절날 실현되었고, 그날 이후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큰 선지자로서 역사하셨으니, 성경의 영감으로,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의 설교로, 교회를 인도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심으로, 그리고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진리를 실현시키심으로써 일하고 계신다.

4.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

1) 승귀의 한 단계로서의 재림

때때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최후의 정점이거나 하듯이 그의 승귀 단계에서 생략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정점은, 인간의 손에 수난 당하신 그분이 심판주의 자격으로 재림하실 때 도달하는 것이다. 그 자신이 이를 중보자적 특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5:22, 27) 사도들도 이같이 증거했다(행 10:42; 17:31),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임명을 증거하는 구절들 외에도 그의 심판 행위에 관한 몇몇 언급이 성경에 나온다(마 19:28; 25:31-34; 눅 3:17; 롬 2:16; 14:9; 고후 5:10; 딤후 4:1; 약 5:9).

2) 재림을 가리키는 성경적 용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 재림을 가리키는 몇 가지 용어가 있다. 파루시아는 이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그 원래 의미는 단순히 '임재'(presence)이지만, 또한 '임재에 앞선 강림' (a corrúng preceding a presence)을 뜻하기도 한다. 이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연관시켜서 사용할 경우에는 후자의 의미로 통용된다(마 24:3, 27, 37, 39; 고전 15:23; 살전 2:19; 3:13; 4:15; 5:23; 살후 2:1; 약 5:7, 8; 벰후 3:4). 두 번째 용어가 '아포칼립시스'인데, 이는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revealing)이 되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단어는 예전에 감추었던 어떤 것(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영광과 위엄, 살후 1:7; 벰전 1:7, 13; 4:13)을 드러냄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용어는 '에피파네이아'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출현(appearing)을 의미한다. 그것이 함축한 뜻은, 드러나는 것이 뭔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다(살후 2:8; 딤후 6:14; 딤후 4:1-8; 딤후 2:13).

3) 그리스도의 재림 방식

혹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고, 그의 재림 약속은 그가 성령으로 강림하셨을 때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요 14-16장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파루시아'는 단순히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정말 재림하셨으며, 오늘날 성령으로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영적 재림이었고, 이에 반해 성경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 가시적 재림을 대망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행 1:11), 심지어 오순절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도록 교훈하고 있다(고전 1:7; 4:5; 11:26; 빌 3:20; 골 3:4; 살전 4:15-17; 살후 1:7-10; 딤후 2:13; 계 1:7).

4) 그의 재림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다. 생사 간에 인간과 천사들이 그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관한 기록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

다(마 24: 30, 31: 25: 31, 32). 재림은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그러나 성도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복으로 임할 것이다(마 25:33-46). 그는 악인들에게는 영벌을 선고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은 정식으로 자기 소유로 인정하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희락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승리의 표지가 될 것이다.

5) 재림 교리에 대한 반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유력한 반론은 그의 육체 부활 교리에 대한 반론과 궤를 같이한다. 만일 육체 부활과 승천이 없다면, 하늘로부터의 육체적 재림도 있을 수 없다. 양자는 똑같이 불가능해지며, 이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은 단지 미개한 시대의 생정한 표현에 불과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당시의 세속적 견해를 취하셨고, 이는 미래에 관한 그의 예언적 말씀 속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진술하고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재림은 권능으로 지상에 윤리적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시는 재림인 것이다.

기독론 강의 5 - 그리스도의 직분

1. 선지자직

1) 선지자의 성경적 개념

(1) 성경에서 사용한 용어

선지자를 지칭하는 구약의 용어는 나비, 로에, 호제의 세 가지다. 나비의 원래 의미는 불명확하지만, 출 7:1과 신 18:18 동의 구절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용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파송된 사람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로에와 호제는 선지자가 특히 환상의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경우를 강조한다. 이 단어들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다른 명칭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자', '파수꾼'이 있다. 이들 명칭은 선지자가 주님의 특별한 일에 종사하고 있고, 동족의 영적 안위를 보살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프로와 페미의 복합어인 프로페테스가 사용된다. 여기서 전치사 프로(앞)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며, 따라서 프로페미는 '미리 말하다'(speak beforehand)가 아니고 '말을 발하다'(speak forth)를 의미한다.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발하는 사람이다. 이상의 칭호들을 종합해 보면, 선지자란 사물을 직시하는 자, 즉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일(특히 사자로서)에 종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2) 이 개념 속에 결합된 두 요소

고전적 성구인 출 7:1과 신 18:18은 선지자의 기능 이 두 요소, 곧 수동적 기능과 능동적 기능, 또는 수용적(receptive) 기능과 생산적(productive) 기능으로 구성됨을 보여 준다. 선지자는 꿈, 환상, 또는 언어적 전달의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이를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또는 예언적 행위로서 가시적으로 전달한다(민 12:6-8; 사 6장; 렘 1:4-10; 겔 3:1-4, 17). 두 요소 중 수동적 요소가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능동적 요소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받지 않은 계시는 줄 수 없고, 받은 것보다 더 전할 수도 없다. 그러나 능동적 측면도 필수적인 것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선지자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비멜렉, 바로, 느부갓네살 등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일이다. 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 위한 구성 요건은 신적 계시를 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명과 지시에 있다.

(3) 선지자의 업무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가르침, 권면, 훈계, 영광스러운 약속, 엄한 책망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들은 백성들의 목양적인 훈계자이며, 특히 윤리적 • 영적 측면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었다. 무의미한 형식주의에 항거하고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며 영적 봉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진리와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만일 백성들이 의무의 길을 벗어나면 그들은 동족을 율법과 증거된 말씀으로 돌이키고, 악인에게 입할 주의 진노를 선포할 사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또한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그들만의 특권이였다. 또한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큰 선지자의 예표가 되었다는 점과(신 18:15; 참조. 행 3:22-24), 그가 이미 구약 시대에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다(벧전 1:11).

2)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의 구분

그리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1) 생육신 이전과 이후

그는 구약 시대에도 주의 천사들의 특별 계시로, 그가 계시의 영으로 임했던 선지자들의 교훈으로(벧전 1:11), 그리고 신자들의 영적 깨달음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이다. 그는 잠 8 장에서는 사람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의인화한 지혜로써 나타난다. 그리고 생육신 후에는 그의 교훈과 이적,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의 설교로,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으로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조명과 감화로 그의 선지자 사역을 수행하신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늘에서 그의 선지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의 가르침은 언어적인 동시에 실제적 (factual)이다. 즉, 그는 언어적 전달로써만이 아니라 생육신, 속죄의 죽음, 부활, 승천 등 계시된 사실들로서, 심지어 구약 시대에는 예표와 의식, 구속사의 기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섭리적 인도의 형태로 가르치셨다.

(2)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으로

그는 그의 선지자직을 직접적으로, 곧 구약 시대에는 주의 천사로서, 그리고 생육신하신 후에는 그의 교훈과 모범으로써(요 13:15; 빌 2:5; 벧전 2:22) 수행하셨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교훈을 매개로 하여, 오늘날에는 복음 사역자들을 도구로 하여 신자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는 또한 그가 선지자 사역을 객관적 • 외적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컬어지는 성령을 통해 주관적 • 내적으로 수행심을 의미한다.

3)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성경적 증거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증거하고 있다. 그는 신 18:15에서 한 사람의 선지자로 예언되었는데, 행 3:22, 23에서 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는 눅 13:33에서 자신을 선지자로 호칭하신다. 더 나아가, 그는 성부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주장하시며(요 8:26-28; 12:49, 50; 14:10, 24; 15:15; 17:8, 20),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고(마 24:3-35; 눅 19:41-44), 독특한 권위로써 말씀하신다(마 7:29). 그의 권능의 사역은 그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었다. 이 모든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였음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마 21:11, 46; 눅 7:16; 24:19; 요 3:2; 4:19; 6:14; 7:40; 9:17).

4)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한 현대 신학의 강조

르낭(Renan), 슈트라우스, 카임(Keim)으로 대표되는 구(舊)자유주의와 플라이더러, 바이넬(Weinel), 베른레 (Wernle), 브레데(Wrede), 윌리허(Juelicher), 하르낙, 부세 등으로 대표되는 후기 자유주의를 막론하고, 교사로서의 예수님 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주된 특징의 하나이다. 교사로서의 그의 중요성이 그의 인격과 사역의 다른 측면들은 배제한 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자유주의 분파 간에는 매우 현저한 차이가 있다. 구 자유주의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든 중요성은 그의 가르침에서 유래되지만, 후기 자유주의에 의하면 그의 교훈 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 독특한 인격에 있다.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환영할 만한 진전 이지만, 성과는 겉보기만큼 크지 않다. 라 투셰가 지적했듯이, "사실상 그의 교훈보다 인격 의 참된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계율에 의한 교육보다 모범에 의한 교

육을 더 중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쨌든 그리스도는 단지 위대한 선생에 불과한 셈이다.

2. 제사장직

1) 성경에서 사용된 제사장의 용어들

제사장을 의미하는 구약의 용어는 거의 예외 없이 코헨이다. 유일한 예외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구절들로서(왕하 23:5; 호 10:5; 습 1:4), 여기서는 크마림이 사용되고 있다. 코헨의 원 의미는 불명확하다. 초기에는 그것이 교직자뿐 아니라 세속 관리를 의미했을 가능성도 있다(참조. 왕상 4:5; 삼하 8:18; 20:26). 이 용어는 언제나 명예롭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고 타인에게 권위를 행사하며, 거의 예외 없이 교직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제사장에 해당되는 신약의 용어는 히 에류스인데, 원래 '강한 자'를 의미했고, 후에 '거룩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

성경은 선지자와 제사장 사이에 포괄적이지만 중대한 구별을 짓고 있다. 양자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임명받았다(신 18:18 이하; 히 5:4). 그러나 선지자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사자로서 그의 뜻을 해석하도록 임명되었다. 그는 일차적으로 종교적 교사였다. 이와 반대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백성들을 위해 말하고 행동할 특권이 있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교사도 겸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선지자와 상이했다. 선지자가 윤리적 • 영적인 의무, 책임, 특권을 강조했음에 비해, 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요건인 의식의 준행을 강조했다.

3) 성경에 명시된 제사장의 직능

제사장의 참된 특징을 보여주고 그의 사역을 부분적으로 설명한 고전적 구절이 히5:1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요소들이 예시되어 있다: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대표자로 선택되었다. / 그는 하나님이 임명하셨다(참조. 4절) / 그는 하나님께 속한 일, 곧 종교적인 일을 인간을 위해 수행한다. / 그의 특별한 일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헌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에는 그 이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으며(히 7:25),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레 9:22).

4)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한 성경의 증거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구속주(Re-deemer)의 제사장직을 예언, 예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시 110:4과 속 6:13에 기록되어 있다. 더구나 구약의 제사장직, 특히 대제사장 직분은 명백하게 제사장인 메시아의 예표인 것이다. 신약에서는 오직 한 책 히브리서만이 그를 제사장으로 칭하고 있지만, 그 호칭은 수차 반복되고 있다(3:1; 4:14; 5:5; 6:20; 7:26; 8:1). 동시에 신약의 다른 많은 책들도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바, 이는 이 주제에 관한 항목에서 살펴볼 것이다.

5)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의 상징과 예표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은 모세의 희생 제사 속에 상징되고 예시되었다.

(1) 속죄적 • 대속적 성격

성경은 이스라엘 중에서 드린 모든 동물 제사가 속죄적이었음을 (비록 이 특징이 한결같이 부각된 것은 아니지만) 입증한다. 그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고, 번제의 경우에는 덜 현저했으며, 화목제의 경우 가장 미약하게 나타났다. 이 제사들에 나타난 속죄 요소의 존재는 다음의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레 1:4; 4:29, 31, 35; 5:10; 16:7; 17:11 등의 명백한 진술. @케이브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죄와 죄책의 전이("移)를 상징하는 행위가 분명한 안수(레 1:4; 16:21, 22). @죄를 덮는 행위로서 제단과 속죄소에 피 뿌리는 것(레 16:27). @거듭 기록된 희생 제사의 효과, 즉 제사 드리는 자의 사죄 체험(레 4:26, 31, 35). 신약의 증거들도 쉽게 추가할 수 있겠지만, 이로써 충분할 것이다.

(2) 예표적 • 예언적 성격

모세의 제사는 의식적 • 상징적이었을 뿐 아니라, 영적 • 예표적 의미도 있었다. 그것은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율법 내에서 복음을 상징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그의 속죄 죽음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제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미 구약 속에 암시되어 있다. 시40:6-8에는 메시아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구절에서 메시아는 구약 제사들을 그 자신의 위대한 희생 제사로 대신하신다. 그림자는 그것이 희미하게 드러났던 실상이 나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히 10:5-9). 신약에는 모세의 제사가 더욱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예표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수많은 실례가 나타난다. 구약 제사들이 그리스도와 그 사역의 예표임을 보여 주는 분명한 암시와, 심지어 명시적인 표현이 골2:17에 나오는데, 본문에서 사도는 모세 율법의 전 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히9:23, 24; 10:1; 13:11, 12). 몇몇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가 그 드린 자들에게 미칠 효력을 보다 고차원적 의미에서 성취하셨으며, 그 방법은 유사하다고 가르치고 있다(고후 5:21; 갈 3:13; 요일 1:7).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으로 불리며 (이는 사 53장과 유월 절 양에서 유래된 명칭임이 분명하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벧전 1:19)으로, 심지어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우리의 유월절 양"(our Passover)으로 호칭된다(고전 5:7). 그리고 모세의 제사는 예표적인 것이었으므로,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 제사의 본질에 관해 어느 정도 조명을 준다.

(3) 그 목적

앞에서 서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구약 제사는 이중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정적 • 계약적 관계 면에서는 그것은 범법자가 부주의와 범죄로 인해 박탈당했던 신정 국가의 일원으로서 누렸던 외적 지위와 특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방편이었다. 그것은 원래 도입되었던 때의 취지와 정신과는 상관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제사 자체가 도덕적 범죄를 속하기에 유효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도덕적 죄과를 속하고 윤리적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참된 제사가 아니었고, 단지 장차 임할 실상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막에 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히 9:9). 그는 다음 장에서 그것들이 능히 제사 드리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으며

(10:1), 죄를 없이 하지 못함(10:4)을 지적하고 있다. 영적 관점에 서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의 예표였으며, 오직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믿음으로써 드러질 때에만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오직 오실 구속주와 약속된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를 고정시킬 경우에만 구원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6)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의 성경의 증거

성경에 서술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의 표현들 중 현저한 것은, 그리스도가 제사장인 동시에 희생 제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는 실상과 완전히 조화된다. 구약에서 양자는 필연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이런 점에서 이 예표들은 불완전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은 히브리서에 가장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보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우리의 유일한 참되고 영원하며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심으로써 참되고 완전한 구속을 쟁취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히5:1-10; 7:1-28; 9:11-15, 24-28; 10:11-14, 19-22; 12:24와 특히 5:5; 7:26; 9:14). 본 서신은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호칭하는 유일한 책이지만, 그의 제사장적 사역은 바울 서신 속에도 분명히 서술되어 있다(롬3:24, 25; 5:6-8; 고전5:7; 15:3; 엡5:2). 동일한 서술을 요한의 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요 1:29; 3: 14, 15; 요일 2:2; 4:10). 뱀의 상징은 중요하다. 뱀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구현체(具現體)를 상징했듯이, 죄 없으신 한 분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뱀을 높이 든 것이 온역의 제거를 의미했듯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들어 올린 것은 죄의 제거를 가져왔다. 그리고 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치료받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베드로의 서술(벧전 2:24; 3:18)과 그리스도 자신의 진술(막 10:45)은 앞의 내용과 일치한다. 주님은 그의 고난이 대속적이었다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신다.

7) 그리스도의 중재대언 사역

고소자(참소자) 사단에 맞서 성부 앞에서 신자들의 소송을 변호하신다.(히7:25, 요일2:1, 계 12:10)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 생활 을 게을리 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못 미치거나 기도 중에 종종 빠뜨리는 영적 필요들도 성부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도 못하는 위험들과 감지하지 못한 우리를 노리는 대적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생각하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실이다. 그는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끝 까지 승리 하도록 기도하신다. 뿐 아니라 우리가 성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신다. 기도에 이러한 요소가 필요한 것은, 기도가 때로는 너무나 미흡하고 사소하며 피상적이고 심지어 불성실한 데 비해 이를 들으시는 분은 거룩함과 위엄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직하게 만드시는 것 외에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행하는 봉사를 성화하신다. 이 역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봉사의 동기가 종종 순전치 못함을 의식하며, 설혹 동기가 순수할 경우에도 그것이 하나님 이 열납하실 만한 완전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죄의 암영이 그 모두 위 에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벤전 2:4, 5). 그리스도의 중보적 직무는 동시에 그의 백성들을 위한 보호의 직무이기도 하다. 그는, 어려울 때, 시험당할 때, 유혹에 빠질 때 그들을 도우신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4:15; 2:18).

8) 현대 신학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

전 장(前章)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직분론은 오늘날의 신학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현대 신학은 일반적으로 본 교리의 결여로 특정 지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부르고 있음은 거의 부인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이 용어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상이한 제 측면들의 수효만큼의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역의 제 측면들 중 어느 한 쪽을 탁월한 것으로서 꼽는다면, 제사장적 측면보다는 선지자적 측면이다. 현대 정신은 직분적 그리스도에 대해 지극히 적대적이며, 자기 부인적 • 자기희생적인 예수는 열렬히 사랑해도 그의 공식적 제사장직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점을 참작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이 예수님을 참된 제사장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단지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했던 구약의 제사장들에 비할 때, 그는 유일하고 참된 제사장 (the only real priest)으로 호칭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곧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림자들의 실체로 계시되었고, 따라서 구약 제사장직의 실체이기도 한 것이다. 히브리서 7장은 그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직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마치 문학과 예술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종종 제사장으로 부르듯, 그를 단지 어떤 비유적 의미에서만 제사장이라고 추측한다면 이는 통탄할 오류인 것이다. 이는 ‘제사장’이라는 용어의 전혀 부당한 용법이며, 성경과 전혀 무관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히 5:6)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메시아를 참된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이다.

3. 왕직

그리스도는 성삼위일체의 제2위이며, 영원하신 성자로서, 당연히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신다. 그의 보좌는 하늘에 세워졌고, 그 나라는 만유를 통치한다(시103:19), 이 왕직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 (divine nature)으로서만 아니라 신인 (The anthropos)의 자격으로서 행사하셨던 수여적 • 경륜적인 중보자로서의 왕직과는 다르다. 후자는 그리스도께서 고유적 권리에 의해 소유하신 왕직이 아니라 수여받은 것이었다. 그것은 닉 (Dick)의 표현대로 한다면 “새로운 형식을 부여받고 새로운 외관을 취하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그리스도의 본래적 왕직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왕직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구원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통치하는 그의 직무적 권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왕국 (regnum gratiae)과 권능의 왕국 (regnum potentiae)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

1)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

(1)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은 은혜의 왕국, 곧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그의 왕적 통치를 의미한다. 그것은 영적 왕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영적인 왕국이다. 그것은 신자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정립된 중보자의 통치권이다. 더욱이 그것은 그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영적 목적에 직접적 ·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적이다. 끝으로, 그것은 폭력이나 외부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진리, 지혜, 공의, 거룩, 은혜, 자비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통치된다는 점에서 영적인 것이다. 이 왕국은 교회의 회집, 정치, 보호, 완성 속에 나타난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시 2:6; 45:6, 7참조. 히 1:8,9; 132:11; 사 9:6,7; 레 23:5,6; 미 5:2; 스 6:13; 눅 1:33; 19:27,38; 22:29; 요 18:36, 37; 행 2:30-36 및 기타). 이 왕국의 영적 성격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반복해서 호칭된다는 사실에서 암시되고 있다(엡 1:22; 4:15; 5:23; 골 1:18; 2:19). 이 용어는 그리스도께 적용될 경우, 사실상 '왕'(권위로 자신을 감싼 우두머리의 비유적 표현)과 동의어로 쓰이지만(고전 11:3; 엡 1:22; 5:23). 다른 경우에는 문자적 · 유기체적 의미로 쓰인다(엡 4:15; 골 1:18; 2:19 및 부분적으로 엡 1:22). 이 단어가 이 같은 유기체적 의미를 함축하지 않고 사용된 경우란 없다(고전 11:3은 예외). 두 개념은 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유기적 · 영적 방식으로 왕으로서 통치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은 그와 그의 몸 된 교회 사이의 신비적 연합을 나타내며, 존재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그의 왕국은 그가 권위로 옷 입으셨음을 암시하며, 법적 영역에 속한다.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은 그의 왕국에 종속되어 있다.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어 주시는 성령 역시 그가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그의 왕권을 행사 하는 수단이다.

(2)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왕국. 이 왕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속죄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기원하지 않고, 이 이름이 시사하듯 그의 구속적 은혜에 기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게 자신의 완전한 희생의 공로를 베푸신다. 그 결과,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를 자신들의 주님이자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영적 왕국이다. 구약 시대에는 이 왕국이 이스라엘 신정 국가로 예시되었다.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이 왕국의 실재성은 오직 신자들의 내면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왕, 입법자, 재판관이 되시고, 지상적 군주는 단지 크신 왕을 대신하여 그의 뜻을 준행하고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임명된, 여호와와 그의 대리자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 국가는, 특별히 신약 시대에 나타나기로 예정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실체의 상징과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했다. 새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구약의 모든 그림자는 지나가 버렸는데, 그중에는 신정적 왕국도 포함되었다. 이스라엘의 모태로부터 왕국의 영적 실체가 출현하였고, 구약적 신정 체제와는 독립된 존재 형태를 취하였다. 따라서 왕국의 영적 성격은 구약보다 신약 성경에서 훨씬 더 명확히 부각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또는 천국 (kingdom of heaven)으로 부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스도는 이 나라의 중보자적 왕이시다.

왕국의 영적 특성은 몇 가지 방식으로 표출된다. 소극적 측면에서는, 그 왕국이 유대인의 외적 · 자연적 왕국이 아님이 분명히 명시 되어 있다(마 8:11, 12; 21:43; 눅 17:21; 요 18:36).

적극적 측면에서는, 그 왕국은 중생함으로써만 들어갈 수 있고(요 3:3, 5), 마치 땅에 뿌린 씨앗(막 4:26-29)이나 겨자씨(막 4:30) 및 누룩(마 13:33)과 같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며 (눅 17:21),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이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왕국이다(요 18:36, 37) 이 왕국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묘사되고 있다. 하나님의 중보자적 왕국의 실재성을 부인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재건될 신정 국가의 형태를 취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왕국의 영적 성격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교육, 입법, 사회 개혁과 같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정립되는 새로운 사회적 상태, 윤리적 목표의 영역으로 간주하려는 오늘날의 추세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동일한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용어는 어떤 구체적 개념보다 추상적 개념, 곧 죄인들의 마음속에 확립되고 인정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면, 모든 인간적 노력과 단순한 형식들의 헛됨을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인간적 노력으로는 단 한 사람의 마음 속에도 확립될 수 없으며, 또한 그 누구도 그 같은 통치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통치를 확립하시는 정도만큼, 그분은 당신이 다스리시고 최대의 특권과 엄선된 복을 베푸시는 왕국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신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하고 왕국의 율법을 순종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새로운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다. 사실, 만일 현재 천국의 시민 된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국의 법을 실제로 지키려 한다면, 이 세상은 심히 달라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 -예컨대, 하나님 또는 메시아의 왕직(마 6:10)과 이 통치가 미치는 영역 및 그 결과로 조성된 환경(마 7:21; 19:23, 24; 8:12), 하나님 또는 메시아의 통치에서 유래하는 복과 특권의 총합(마 13:44, 45)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적 절정을 표시하는 사물의 상태(마 22:2-14; 눅 14:16-24; 13:29)-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왕국이다. 그것은 일면 사람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현존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영적 실체로서, 끊임없이 확대되어 가는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 왕국이 이미 그들의 시대에 임한 것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다 (마 12:28; 눅 17:21; 골 1: 13). 이 사실은 오늘날 대다수의 전천년주의자들에 맞서 역설 되어야 한다. 반면에 그것은 또한 미래에 임할 소망이며 종말론적 실체인 것이다. 사실상 이들 양자 중에서 왕국의 종말론적인 측면이 더 현저하게 부각된다(마 7:21, 22; 19:23; 22:2-14; 25:1-13, 34; 눅 22:29, 30; 고전 6:9; 15:50; 갈 5:21; 엡 5:5; 살전 2:12; 딤후 4:18; 히 12:28; 벧후 1: 11). 본질상 미래적 왕국은 현재적 왕국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립되고 인정된 하나님의 통치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재림하실 때, 이 확립과 인정이 완성되고, 왕국의 숨겨졌던 능력이 밝히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는 가시적이고 장엄한 모습으로 완결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적 왕국이 거의 감지할 수 없게 미래적 왕국으로 발전되어 나가리라고 추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미래적 왕국의 도래에 앞서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을 밝히 교훈하고 있다(마 24 :21-44; 눅 17:22-37; 21:5-33; 살전 5:2, 3; 벧후 3: 10-12).

교회와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지만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 왕국의 시민권은 무형 교회의 회원권 (membership)과 같다. 그러나 그 작용 범위는 교회보다도 더욱 광범한 데, 이는 이 왕국이 생의 모든 방면을 관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유형 교회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왕국의 유일한 외적 조직체이다. 동시에 그것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탁월한 수단이다. '하나님의 나 라'라는 용어가 때로는 유형 교회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마 8:12; 13:24-30, 47-50). 교회와 왕국은 구별되어야 하겠지만, 전천년주의자들의 방식을 좇아 구분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왕국을 본질상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고, 교회는 현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회집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의 교회였고, 그 영적 본질상 신약 교회와 단일체를 구성하는 것이다(행 7:38: 롬 2: 11-24: 갈 3:7-9, 29: 엡 2: 11-22)

(3) 이 왕직의 기간

그 시작. 교회가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입장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중보자적 왕으로서 임명되었고,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왕으로서 사역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다(잠 8:23: 시 2:6) 구약 시대에 그는 일부는 사사들을 통해, 일부는 예표적인 왕들을 통해 그의 왕적 임무를 수행하셨다. 그러나 비록 그가 성육신 이전부터 중보자로서 통치하도록 허락받으셨어도, 그는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는, 공개적으로 또한 정식으로 그의 보좌에 앉아 그의 영적 왕국을 출범시키지 않으셨다(행 2:29-36: 빌 2:5-11).

끝.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은 비록 세계의 종말로 그 행사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겪겠지만, 그 근본적 특성에 있어서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의 기한의 영원함은 다음의 구절들에 밝히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45:6(비교. 히 1:8); 72:17;89:36, 37; 사 9:7; 단 2:44; 삼하 7:13, 16: 눅 1:33; 벰후 1: 11. 하 이텔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 부르고 있다. 벨기에 신앙 고백 제27조도 이와 비슷하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왕직과 머리됨(headship)은 서로 불가 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후자는 전자에 종속되어 있고, 때로는 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묘사되어 있다(엡 1:21, 22: 5:22-24).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가 결코 교회의 머리됨을 그만 두사 교회를 머리 없는 지체로 버려두시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끝으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도 그의 영적 왕직의 임기의 영원함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의 중보자 직분은 결국 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덕과 카이퍼는, 그리스도의 이 같은 왕직은 그가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때 끝나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근거로 삼는 유일한 구절 은 고전 15:24-28이지만,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이 아닌 우주에 대한 그의 통치직을 가리키는 것이다.

2)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직

(1) 이 왕직의 성격. 우리는 권능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신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섭리적 · 사법적으로 통치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한

다. 중보자는 우주의 통치자로서, 개인, 사회 집단, 민족들의 운명을 그가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의 영적 성장, 점진적 정화 및 궁극적 완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또한 그는 그 같은 자격으로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멸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보전하신 다. 우리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인간의 원래적 왕직의 첫 회복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그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과 민족들의 운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상은 그가 현재 '하늘 보좌로 도피해 계신 자(a refugee)'라는 개념보다 훨씬 위안을 주는 것이다.

(2)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의 관계.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의 영적 왕직에 종속된다. 기름 부음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며 모든 적대 세력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이다. 그는 이 일을, 죄의 세력 아래 있고 일체의 영적 노력을 방해하는 데 전심하고 있는 세상에서 수행하셔야 한다. 만일 그 세상을 통제하실 수 없다면, 세상은 쉽사리 그의 모든 노력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그는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운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안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일체의 흑암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세력들은 그의 목적을 위해 강제로 봉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자애로운 통치하에서는 심지어 인간의 분노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이다.

(3) 이 왕직의 기간.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으로 들리심 받았을 때 우주에 대한 이 왕직을 정식으로 위임받으셨다. 그것은 그의 노고에 대해 미리 약속되었던 상급이었다(시 2:8, 9; 마 28:18; 엡 1:20-22; 빌 2:9-11). 이러한 임직은 신인의 승귀의 일부분이었다. 이 임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미 소유하시지 않은 다른 능력이나 권세를 받았거나 그의 통치 영역이 확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신인이 이 같은 권세의 주인이 되었고, 그의 인성이 이 같은 왕적 통치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제는 세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왕직은 원수들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고 심지어 사망이 철폐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고전 15:24-28). 만물이 완성될 때 신인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에게 부여되었던 권세를 포기하게 될 것은,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 반납함으로써 하나님은 만유 중의 만유가 되실 것이다. 목표는 달성되었으니, 인류는 구속되고 이로써 인간의 원래적 왕직이 회복된 것이다.

기독론 강의 6 - 그리스도의 속죄

1.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속죄이지만, 이는 물론 중보(intercession)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지상에서의 그의 희생 사역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양자는 구세주의 제사장직의 보완적인 두 부분이다. 본장과 다음 세 장에서는 종종 "복음의 정수"로 불리는 속죄 교리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속죄의 동인(動因, Moving Cause)

(1)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죄의 동인은 대리적 속죄로써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소산이다. 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세상 오시리라고 예언되었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사 53:10). 그의 탄생 시에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라고 노래하였다. 요 3:16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갈 1:4)고 증거하며, 또 다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19, 20)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다른 구절들을 어렵지 않게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하나님의 전횡적인 의지가 아님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횡적 의지로 간주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질 자체에 뿌리를 두고 신적 속성들과 조화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대리적 속죄로써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고 있다. 버림받은 죄인들에게 피할 길을 제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요 3:16),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롬 3:26) 하기 위해서 본질상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요청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다. 우리는 롬 3:24, 25에서 양 요소의 결합을 목도하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같은 서술은 전횡적 의지를 생각할 수 없게 한다.

(3) 사랑과 공의의 결합

이 문제에 있어서 일체의 치우침을 피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속죄를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만 기초한 것으로 묘사한다면, 속죄의 동인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고, 속죄 만족설 (satisfaction theory)을 오직 당신의 영광에만 관심을 가진 보복적 신 관념을 함축하는 것으로 묘사하려 하는 반대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일 우리가 속죄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간주할 경우, 우리는 그의 공의와 진실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불가해한 수수께끼로 축소시키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가혹한 고난과 수치스러운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단지 그의 사랑의 원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2) 속죄 필요성의 증거

(1) 하나님은 그의 신적 의와 거룩함으로 인해, 그의 무한한 위엄에 대한 도전을 단순히 묵과하실 수 없고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만 한다는 것은 성경의 자명한 교훈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죄인을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발견하게 된다(출 34:7; 민 14:18; 나 1:3) 그는 신적 증오심으로 죄를 미워하시며, 그의 전존재가 이를 대적하신다(시 5:4-6; 나 1:2; 롬 1:18). 바울은 롬 3:25, 26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죄의 속죄 제물로 바쳐질 필요가 있었다고 변론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속죄의 필요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2) 하나님의 본성 속에 내재된 신적 율법의 위엄과 절대 불변성으로 인해 그는 죄인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율법의 위반에는 필연적으로 형벌이 수반된다. 그의 본성 자체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길 수 없는 법칙이다(마 5:18). 율법의 일반적 원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 27:26)는 구절에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는 죄인의 칭의를 위한 근거로서 대리적 만족을 준비하셔야만 했다.

(3) 속죄의 필요성은 또한 진리의 신이시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정직성에서 기인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민 23:19). 바울은 말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롬 3:4). 그가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는 불순종의 대가(형벌)는 죽음이 될 것을 정하셨다. 이 원리는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들(겔 18:4; 롬 6:23) 속에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형벌의 집행을 요구하며, 만일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형벌이 대리자의 생명에 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4) 동일한 결론이 죄책으로서의 죄의 성질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만일 죄가 단순히 도덕적 연약성이고 인간 이전 상태의 잔재로서 점진적으로 더 고차원적인 인간성에 복속하게 되는 것이라면 속죄는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죄란 그보다 더욱 가증한 그 무엇이다. 소극적으로는 불법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따르게 되고(요일 3:4; 롬 2:25, 27), 죄책은 범죄자를 율법에게 빚진 자로 만들어 개인적 또는

대리적 속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5)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희생 제물의 경이적 위대성도 역시 속죄의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쓰라린 고난과 부끄러운 죽음을 겪도록 내어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아무런 필요 없이 행하셨으리라 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갈 3:21 에서 바울이,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희생되지 않았으리라고 변론 한 구절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필수적이었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눅 24:26; 히 2:10; 8:3; 9:22, 23).

2. 속죄의 의미

속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네 개의 단어로 표현한다.

(1) 첫 번째는 '제사'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라고 표현한다. 히브리서 10: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 제사의 기본적 의미는 제물이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속상(贖償, expiation; 죄책과 형벌의 보상)이라고 부른다. 레위기 1:4,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너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는 안수가 죄의 전가를 의미함을 증거한다. 레위기 16:21, 22,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한적한 곳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산 염소'는 '아사셀'(아자젤)이라고 불리는데(레 16:10), 그것은 '내어놓는 염소'라는 뜻으로서 죄의 완전한 제거와 용서를 상징하였다.

예수께서는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들의 죄책과 형벌을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2) 두 번째는 '구속'(救贖)이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속전(贖錢)을 내고 건져낸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택된 자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들을 사셔서 그들의 죄책과 형벌로부터 건져내셨다. 마태복음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代贖物)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20:28,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아포뤼트로시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19, 20, ". . .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디모데전서 2: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贖錢, 안티뤼트론)으로 주셨으니."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

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 세 번째는 ‘유화’(宥和, propitiation)이다.¹¹⁸⁾ ‘유화’란 진노를 가라앉힌다, 누그러뜨린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 로마서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유화제물](hilas테리온)로 세우셨으니.” 히브리서 2:17,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유화하려; 힐라스케스다이) 하심이라.” 요한일서 2: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유화제물](hil라스모스)이니.” 요한일서 4:10,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유화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4) 네 번째는 ‘화목’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셨다. 로마서 5:10,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로마서 5:11,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18,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에베소서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3. 속죄의 성질

1)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역사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역사적 사건이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인류의 구속(救贖)을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이 역사적 사건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을 믿고 이 사건을 전파한다. 고린도전서 1:23,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음을] 전하니.” 고린도전서 2: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히브리서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객관적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진 일이었다. 아직 죄인들의 심령에 그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아직 죄인들 자신에게 구원이 적용되기 전에, 아직 죄인들의 심령 속에 그 죽음의 효력이 미치기 전에, 그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택자들을 위한 구속(救贖)을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1:29,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앞에서 고찰한 속죄의 네 가지 의미들은 다 속죄의 객관성을 증거한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대리적(代理的)이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많

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의 대속의 공로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충족하였다. 그의 속죄의 대리적 충족성은 그의 신성(神性)에 근거한다. 그의 신인(神人)적 인격은 그의 속죄사역을 무한한 가치를 가진 행위로 만들었다. 이사야 53:5, 6,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 . .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20:28, “많은 사람의 대속물(代贖物).”119) 마태복음 26:28,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후서 5:14,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베드로전서 3:18,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4)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완전하였다. 그것은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완전하였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덧붙여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였다.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 그 속죄사역은 택자들의 짓값의 완전한 지불이며 그들의 죄책과 죄의 형벌의 완전한 보상이었다.

다니엘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永贖)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요한복음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고린도전서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고린도전서 1:30,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로마서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에파팩스)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10,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헤기아스메노이).” 히브리서 10: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케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18,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택자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는 택자들을 위해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죄 씻음과 완전한 의를 받았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자유와 평안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참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이유가 있다.

4. 속죄의 제반 이론들

1) 사단 배상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게 속전(贖錢, ransom)으로 내어준 죽음이었다

고 생각하였다. 이것을 '사탄 배상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견해는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며, 죄인에 대한 법적 권한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구절인 히브리서 2:14 은 그들의 생각을 지원하지 않는다.

2) 도덕감화설 혹은 모범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자기희생적 사랑과 모범의 죽음이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모범적 선생이요 한 고귀한 순교자이셨으며 그의 모범적 사랑이 죄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감동한다고 한다. 이것을 흔히 '도덕감화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요 확증인 것이 사실이지만¹²⁵⁾,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뿐이라면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견해는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가 엄밀한 의미에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며, 그것은 성경적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큰 오류, 이단적 오류이다.

3) 도덕적 통치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워하심의 표시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도덕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교훈하셨다고 한다. 이것을 흔히 '도덕적 통치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견해는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의 개념과 조화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 그것은 단지 피조물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런 교훈적 의미뿐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무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복음도 없다. 그것은 성경적 복음을 부정하는 이단적 오류이다.

4) 신비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육신으로 그의 인성이 정결케 되셨고,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그의 새 인성에 신비적으로 연합됨으로써 의(義)를 주입받아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흔히 '신비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그의 성육신을 중시함으로써 그의 죽음의 중요성을 부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의 개념을 바르게 가지지 못한다.

5. 속죄의 목적(효과)

속죄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구원의 중보적 창시자인 그리스도의 신분과 상태, 그리고 죄인의 신분과 상태에 섭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1) 하나님과 관련된 속죄의 효과

우선 속죄가 불변적인 하나님의 내적 존재성에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강조해야 한다. 일어난 유일한 변화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죄하시는 사랑의 대상인 인간과의 관계의 변화였다. 그분은 당신의 사법적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들과 화해하신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의 죄를 희생제사로 덮어서 그의 진노가 비켜지나갔다는 의미이다. 속죄를 하나님의 사랑의

동인(動因, moving cause)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속죄가 계약적 • 형벌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요구를 전부 만족시킴으로써, 죄인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발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 그리스도와 관련된 속죄의 효과

속죄는 중보자인 그리스도께 다양한 상급을 확보해 주었다. 그는 생명을 주시는 영, 죄인들의 구원의 복을 위한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되신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받았다.

(1) 현재의 메시아적 영광을 포함해서 그의 영광에 속하는 모든 것. 그래서 그는 그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에 이미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예감하시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5).

(2)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총만한 은사와 은혜. 그래서 시 68:18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바울은 엡4:8에서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다.

(3) 그의 신비적 몸을 이루고 속죄 사역의 성과의 주관적 적용을 위한 성령의 은사. 이는 오순절날 행한 베드로의 설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행 2:33).

(4) 그의 소유와 통치 아래 놓여지게 된 땅과 세계.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하나였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시 2:8). 이 약속의 성취는 히 2:6-9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3) 죄인에 대한 속죄의 효과

(1) 속죄는 죄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견고하게 했다. 이 점에서 개혁파는 로마 가톨릭, 루터파, 알미니우스파 및 보편 속죄를 가르치는 모든 분파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후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지 구원을 가능하게 했을 뿐,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파는 속죄가 그 의도한 사람들에게 대한 구속 사역의 적용을 공로적으로 획득했고, 따라서 그들의 완전한 구원을 견고하게 했다고 가르치고 있다.

(2) 속죄는 속죄받은 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익을 확보하였다.

칭의를 통한 정당한 사법적 지위. 이것에는 사죄, 양자 됨, 영원한 기业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중생과 성화를 통한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 이에는 옛 사람이 점진적으로 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 받은 새 사람을 점차 옷 입는 과정이 포함된다.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교, 개인적 영화(榮化), 그리고 새롭고 완전한 세계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그들의 최종적 복락. 성령의 역사로써 신자의 마음속에 굳건히 뿌리박은 진정한 도덕적 생활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 유일한 교리.

6. 속죄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속량하신 자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에 대해서는, 역사상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보편속죄설이고, 다른 하나는 제한속죄설이다. 보편속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견해의 전제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 견해의 핵심적 생각은 구원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알미니우스주의라고 부른다. 이와 구별하여, 제한 속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만을 대속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아니면 인류 중 일부 즉 그가 영원 전에 선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를 위해 즉 인류 전체의 죄책과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만을 위해 돌아가셨는가?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보장(保障)의 문제와도 관계되며, 또 전도할 때 전도자의 실제적 마음가짐에도 관계된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의 구원이 오직 인간 자신의 결심에 달려 있는가, 혹은 달리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신가, 이다.

개혁신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한성을 성경적 진리로 고백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의 근거는 다음 3가지 요점으로 서술될 수 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밝히 가르치며 또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가르친다. 시편 3: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요나 2:9,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마태복음 19:26,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로마서 9:16, 18,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압케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4:12, "(하나님은)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 외에도, 마태복음 16:17,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도행전 11:18,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사도행전 16:14,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신명기 29:4,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하나님의 예정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도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증한다. 요한복

음 6:39,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도행전 13: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사람의 구원이 오직 자신의 결심(회개와 믿음)에 달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또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뜻하셨다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런데 보편속죄설은 사람의 구원이 자신의 결심에 달렸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키실 수는 없고 또 변화시키시려고도 하지 않으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와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제한성을 보인다.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이지 않다면, 선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인류 전체와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 자기 양들에 대해 분명히 증거한다.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17:9,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0:15,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128)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여 사랑하심도 하나님의 구원의 제한성을 증거한다. 호세아 11: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도 구원의 제한성을 암시한다. 이사야 53:5, 6, 8,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또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도 구원의 제한성을 암시한다. 이사야 53:11, 12,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의롭다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마태복음 20:28,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28, “이것은 죄사함

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알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심을 옹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제한성을 부정한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분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나머지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버려두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알미니우스주의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믿는 보편 구원을 주장하지 않는 한-그리고 물론 보편 구원론은 명백히 비성경적이다-그들의 보편적 속죄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옹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을 가진 전능자가 죄로 멸망하는 인생을 관망만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옹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려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분을 영원한 멸망에 버려두셨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속죄의 본질적 성격에 있다. 속죄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책과 형벌을 담당하신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사도행전 20:28,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는 결코 헛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가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영원 전에 선택된 자들, 곧 그의 양들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그들, 바로 그가 피 흘려 사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면, 멸망 받을 죄인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논리적이다. 왜냐하면 속죄의 본질적 성격상 피 값을 주고 사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편속죄설은 논리적으로 보편구원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보편구원론은 성경적 진리일 수 없다. 마태복음 7:13,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누가복음 13:23, 24,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존 오웬(John Owen)은 제한속죄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증명하였다.

성부께서 그의 진노를 부과하시고 성자께서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은 (1)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든지, (2) 일부분의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든지, 혹은 (3) 모든 사람들의 일부분의 죄들을 위해서이다. 각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만일 마지막 경우가 참되다면,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어떤 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두 번째가 참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선택된 자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을 것이고 이것이 진리이다.

그러나 만일 첫 번째가 참되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가? 불신앙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대답한다. 나는 묻는다. 이 불신앙은 죄인가 죄가 아닌가? 만일 그것이 죄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형벌을 받으셨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것이다. 만일 주께서 받으셨다면, 왜 그것이 주께서 대속하신 그들의 다른 죄들 이상으로 그들에게 방해가 되어야 하는가? 만일 주께서 그것의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다는 말이 될 것이다.

참고 - 보편 속죄설을 지지하는 듯한 구절들의 설명

에스겔 18:2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평함과 의로움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다. 이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평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가 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의 적극적 의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위에서 언급된 진리들, 특히 선택의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도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를 보이는 듯하다. 과연 그러한가? 만일 그러하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제한성을 보이는 여러 구절들, 특히 선택의 진리의 구절들과 모순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도 다른 구절들과 조화시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 가지의 가능한 해석이 있다.

(1) 이 구절은 에스겔 18:23과 비슷하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가 곧 그의 적극적 구원 의지와 동일하지는 않다.

(2)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대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성경에서 특히 디모데전·후서에서 '모든'이 대략적 의미로 사용된 예들이 많다. 디모데전서 2:1,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되]." 디모데전서 4:15,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5: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디모데후서 1:15,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디모데후서 4: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3)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선택된 자들 모두'라는 제한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요한복음 12: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디모데전서 2: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것도 보편 속죄를 보이는 듯한 구절이다. 그러나 이 구절도 역시 다른 많은 구절들과 조화시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대략적 의미 혹은 제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1)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가리키든지, (2) 각계 각층의 사람 모두를 가리키든지, 혹은 (3) 택한 받은 사람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베드로후서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의 '너희'는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한속죄의 진리는 어떤 이들이 오해하듯이 결코 전도의 필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선택과 속죄뿐만 아니라, 또한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필수 과정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인 구원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를 믿는 동시에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바로 그러한 진리들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담대히, 낙심치 말고 전할 수 있는 것이다.